

SIMA

문학매거진 시마
22호, 2025 봄



정가: 14,000원

SIMA
초대석

이영춘 : 영화처럼 강물처럼, 열차를 타자

봄 초대시 : 고명재 김이녁 장주호



파란하늘

영화처럼 강물처럼, 열차를 타자

글 / 유수진 시인





봄과 낭만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영춘 시인

문학은 상상하고 꿈꾸는 일이다. 꿈꾸는 방식과 상상의 궤도가 저마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상과 꿈을 토대로 한 합리적인 비판이야말로 문학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용산역에서 남춘천행 ITX 청춘 열차를 타려면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

남춘천행 열차가 출발하는 플랫폼에서는 경의중앙선이 수시로 오가고 있었다. 겨울옷 몇 개를 꺼입고 춘천을 상상했다. 그리고 호수, 청춘, 봄을 생각하다 보니 ‘청춘 열차를 타면 봄의 날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어느새 공상에 빠졌다. 그리고 물었다. ‘그래, 어느 시간, 어느 곳, 어느 날씨로 다시 가 보고 싶은 거니?’

남춘천행 열차를 타고 가는 내내 묻고 물었지만 괜

히 입술만 자꾸 깨물고 있는 한 사람이 열차 차창으로 열게 보일 뿐이었다. 답을 찾지도 못하고 질문을 접지도 못한 나는 이영춘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묻고 말았다.

“선생님! 지금은 1월이지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봄은 어떤가요?”

1월이지만 봄이라니, 말을 꺼낸 놓고 나도 참 어이 없구나 생각했지만, 시력 50년, 문단의 대선배는 봄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시로 체험한 봄과 생활로 경험한 봄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오고 또 나가는 일에 대해 들으며 여러 방향의 기차를 타고 내리는 용산역 플랫폼을 떠올렸다.

“봄은 탄생을 자주 목격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두운 그림자를 더 많이 보게 되지요.”

이영춘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 봄은 그림자가 큰 계절이구나, 깨달았다. 햇살이 부서지듯 쏟아지는 봄날 엔 햇살보다 더 어두운 그림자가 곳곳에 산재한다. 그리고 불쑥, 또는 불현듯 나타나 나, 여기 있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곤 했다. 그래서 눈부실 만큼 아프기도 했다. 그래 그랬다!





창작할 때마다 존재에 대한 회의로 우울하다가도
유유히 흐르는 소양강을 바라보면
다 씻기곤 한다는 이영춘 시인

이영춘 선생님은 최근 창작 작업에 관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면서 특히 존재에 대한 회의에 지배당하는 듯하다고 하셨다. 열여섯 살부터 죽음이라는 관념을 생각해 왔는데 여전히 죽음과 존재에 대해 고민 중이라는 이영춘 시인의 말을 들었다. 열다섯의 나와 그 열다섯의 봄밤과 달그림자가 떠올라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선생님께 털어놓고 말았으니 그리고 보면 글을 쓴다는 것, 작가로 산다는 것, 시를 짓는 일은 어린 어느 나이에 문득 꺼내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일평생 붙드는 일인 모양이다.

이영춘 선생님에게 짓궂은 질문을 했다.

“선생님! 선생님! 만일 ITX 청춘 열차가 청춘으로
로 데려다준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30대의 겨울 어느 31일 태백 설산으로 가는 영동선 열차를 탈 거라는 이영춘 선생님의 표정이 영화처럼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이제는 내려가는 법도 배워야겠다’

이영춘 선생님이 읊조리는 시구절을 들으며 절창 이구나 생각했다.

청춘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내내 다시 고

민했지만 용산역에서 내릴 때까지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구하는 일, 영화처럼 강물처럼 남춘천에 다녀왔다. 용산역에 내리고 몇 분 후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경의중앙선이 방금 청춘열차가 지나간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문득 외롭다면, 불현듯 우울과 고독이 잘 분간되지 않으면 용산역 경의중앙선 플랫폼에 서자. 한 플랫폼에서 여러 방향 열차가 도착하고 출발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하겠지만, 우리 열차를 타자.



자리를 함께 한 오혜정, 송연숙, 이영춘, 유수진 시인 (왼쪽부터)



이영춘 시인의 작품집, 50년 창작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강촌연가 1

이영춘

목숨 끊어질 정도로 절박했던
사랑도 아픔도 그리움도
숯불 아궁이의 숯불처럼
잠들고

서른일곱에 이 세상 하직하겠다던
젊은 날의 고뇌도 갈등도
깊은 물 속에 침잠 되어
물이 되고
오늘은 그 물길 따라
그냥 떠내려가고 있다
늘 올라가기만을 꿈꾸던 길에서
이제는 내려가는 법도 배워야겠다



이영춘

평창 봉평 출생. 1976년 〈월간문학〉 등단. 경희대 국문과 및 동 교육대학원 졸업
저서로 『시시포스의 둘』, 『시간의 옆구리』, 『봉평 장날』, 『노자의 무덤을 가다』, 『따뜻한 편지』,
『오늘은 같은 길을 세 번 건넜다』, 『그 뼈가 아파서 울었다』, 『참회록을 쓰고 싶은 날』 등
17권의 시집과 시선집 『뜰풀』, 『오줌발, 별꽃무늬』, 번역시집 『해, 저 블은 얼굴』,
시 감상과 해설집 『시와 함께, 독자와 함께!』, 수필집 『그래도, 사랑이여!』 등 22권의 저서가 있다.
〈윤동주문학상〉, 〈고신문학대상〉, 〈유심작품상특별상〉, 〈김삿갓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가끔 혼자 낚시하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핑계 / 김 미희

가을걷이 한창인 별 좋은 날
담벼락에 말라붙은 능소화 시든 미소를 보았지

원래부터 웃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한 뼘씩 짧아지는 늦여름 태양의 비밀을 알고
조급증에 불히던 얼굴
가을비에 젖지 않으려 소맷자락 끌어당기던
마른 가슴인지 몰라

표정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

피다 만 꽃이 통째로 진다 해도 웃음이면 다 될 줄 알았던 건
나를 넘어가는 펑계가 필요했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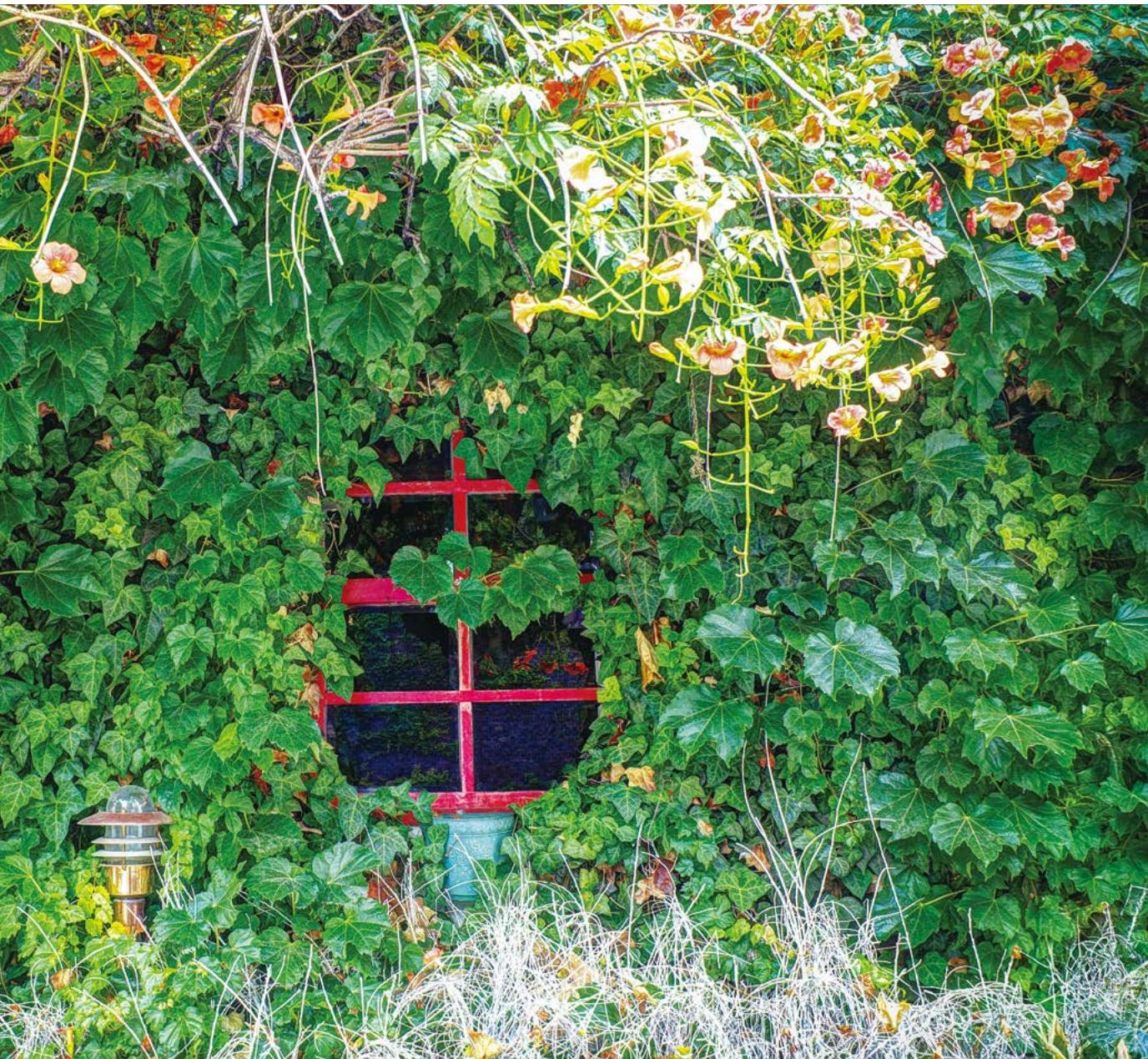
실은 낯빛도 절로 변하는 게 아니니까

향기로 잡아두는 건 안 돼
구름을 보라지
말이 말 될 때는 열린 입술이 젖어 있을 때이니

꼭 가본 적이 없다고 멀게만 느껴지는 건 아니어서
담벼락에 찍힌 무수한 손톱자국에서
떠나가고 돌아오며 부대끼는 빛을 더해 기억을 조작할 일

느린 비가 오래도록 내릴 수 있도록
그리워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도 거저 웃게 될지도 몰라
입 다물고도





김미희

〈미주문학〉 등단. 시집 「눈물을 수선하다」(2016 세종 도서 문학나눔 선정) 「자오선을 지날 때는 몸살을 앓는다」, 〈편문학상〉, 〈윤동주서시해외작가상〉, 〈성호문학상〉 본상 수상. 〈KTN〉 신문에 「김미희 시인의 영혼을 위한 세탁소」를 연재 중, 연극배우로도 활동 중이며 〈한솔문학〉 대표이다.



김선하

사진작가, 화가, 칼럼니스트. 개인사진전 2회, 〈달лас 한인신문〉에 사진 칼럼 「사람이 있는 풍경」과 「삶의 파노라마」를 10년째 연재 중, 이민자의 희로애락을 사진과 글로 담는 휴머니스트.



The Way, My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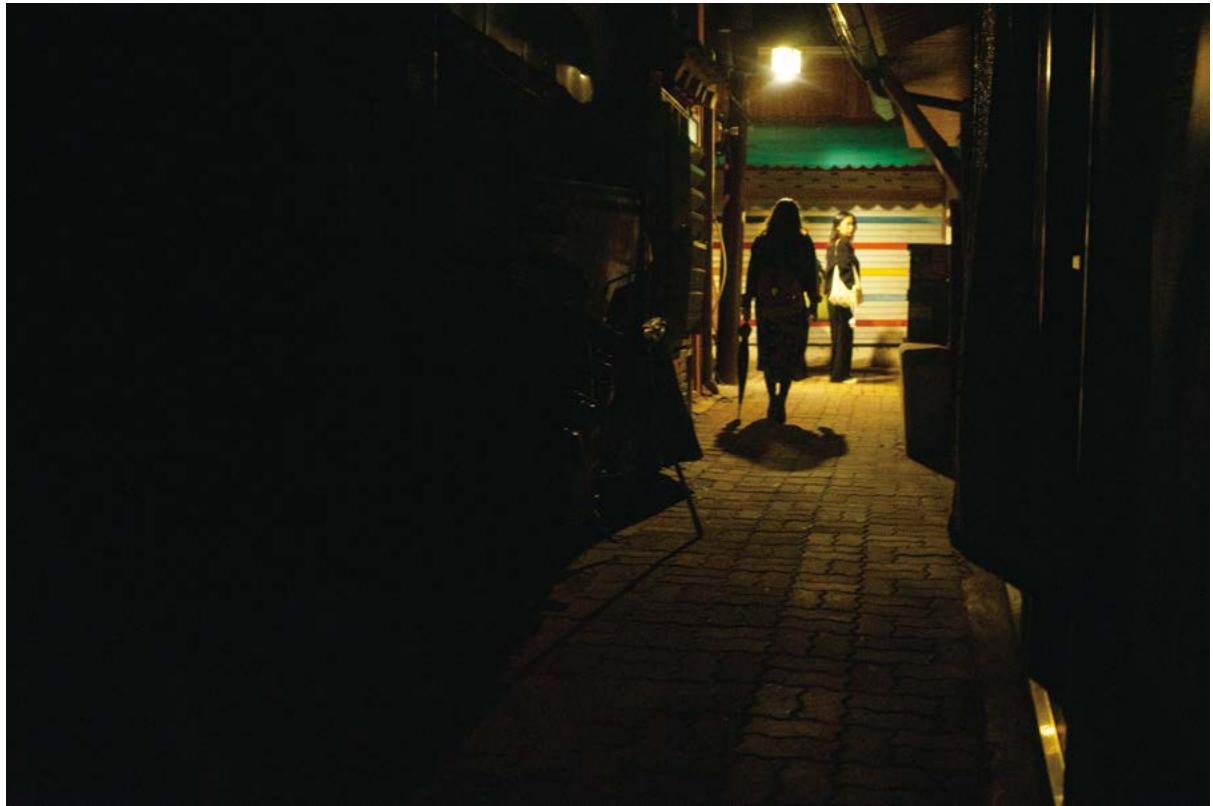
얼마 전, 한국행 비행 편에서 지루함을 달랠 요량으로 기내 영화 서비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우연한 영화 한 편을 만났다. 각색되지 않은 일상의 언어로 만든 영화는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다한 걱정과 위로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는 영화였다. 눈길을 잡아끄는 대단한 액션도, 가슴 뛰게 할 로맨스를 장착한 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마치 오랜 시간 외장하드에 숨겨 두었던 흑백 영화를 꺼내 보는 듯한 감성의 차진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The Way, My Way』 호주의 영화감독 벨 베넷의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낸 영화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박스 오피스에서 잔잔한 성공을 거뒀다. 영화의 주인공인 벨 베넷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Camino de Santiago에 나서, 성 야고보의 무덤에 이르는 800km를 걸어 목적지에 다다르는 단순한 플롯의 영화다.

단조로울 수 있는 일인칭 시점의 영화는, 주인공의 보이스오버를 통해 삶의 의미와 지혜, 자신을 향한 채찍과 타인을 향한 따듯한 배려가 관객에게 전달되면서 1시간

길 위에서의 고독은 떠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다.





인생의 모퉁이 길에서 만나는 우연한 조우는 때론 삶의 지표가 되거나 지지가 되기도 한다.

30분의 상영시간 내내 나 자신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에 깊숙이 빠져있음을 알게 되는 치유 영화다.

나는 인디영화 애호가다. 특히, 현대인의 신변잡기를 윤색되지 않은 언어와 색 바랜 청바지처럼 편안한 연기로 그려내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영화는, 손품을 파는 노력으로라도 기어이 찾아보고 마는 나로선 「The Way, My Way」가 매우 매력적인 영화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주인공이 운전 도중 아내에게 순례 여행길의 동참을 제안하면서 시작된다. 아내의 일언지하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기어이 세심한 준비 과정을 거쳐 혈혈단신 길을 나서게 된다.

800km, 40일에 달하는 길 위의 영화는, 나이에 비해 다소 무리일 수도 있는 주인공이 길 위에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내며 기어이 목적지에 다다르는 성취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담담히 담아낸다.

나는 몇 해 전부터 주변의 지인들에게 산티아고 순례 길 동참을 강권하고 있다. 혼자 길을 나서기에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 국토의 종단에 맞먹는 800km 거리에 대한 두려움과 아직은 생업의 종사가 우선인지라 부담되는 40일의 시간이 선뜻 나설 용기를 주지 못해, 동행에 순응할 지인을 찾고 있던 차에 이 영화를 만나게 됐다. 내가 이 영화에 깊은 여운을 느끼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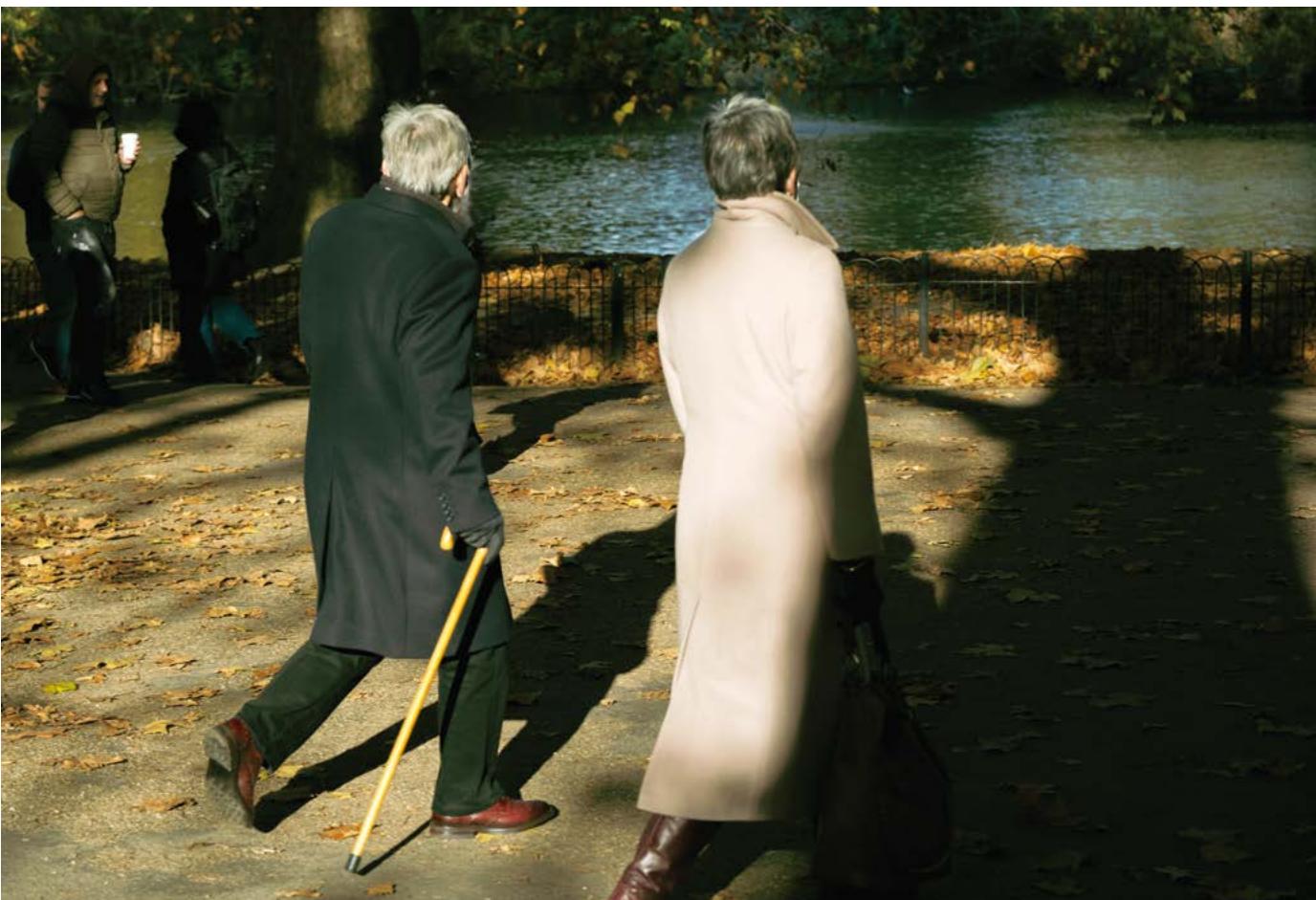


온전히 혼자가 되는 일은 길 위에서 만날 수 있는 보석같은 순간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느린 속도로 천천히 걸으며, 자연과 호흡하고 대화하며 온전히 내 삶의 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은, 생각만으로도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는 것과 같은 흥분을 일으킨다. 부끄러운 개인의 서사는 오롯이 혼자 할 걸음과 햇빛 그리고 바람 소리로 지워 내며 기어이 완주해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나의 아내에게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마음을 담은 고백을 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주인공이 영화 전반에 걸쳐 독백한, 삶에서 대수롭지 못했던 걷기와 밀하기, 주변과 유대하기, 술 마시기 같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

『The Way, My Way』는 한 남자의 개인적인 여정과 가족 간의 유대, 그리고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신체적 이동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함과 정체성을 찾기 위한 내면의 탐색이었다.

영화를 통해 주인공은 신체적인 어려움에 걷기를 포기하려는 고비의 꼭지마다 새로운 순례자들을 등장시켜 다시 걸을 용기를 불러내고, 그렇게 깨닫게 된 “길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 준다. 영화는 조용한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서 선택과 변화가 주는 새로운 길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우리가 개척해 온 삶의 여정에는 상대로 인해 풍요로워지는 순간이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순례의 끝에 이르러 아내에게 전화를 건다. 순례의 목적지에 다다른 기쁨에 더해 여행지에서 겪었던 고난과 그에 견줄 성취 그리고, 그 모든 벽찬 감정을 담아 감사와 사과를 전하는 장면은 보는 이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그가 걸어온 전 과정을 관종한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The Way, My Way』는 외적인 길을 넘어선 내면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삶은 혼자 걸을 수 없는 길이며, 우리는 서로에게 주는 사랑과 지지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남긴다.

나처럼 우연히 이 영화를 만나 떠날 결심을 하는 누군가에게 “Buen Camino”, ‘좋은 여행이 되길,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함께 하길’이라는 말에 마음을 담아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싶다.

글 · 사진 조성찬

관광학 박사

전 가톨릭 관동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시루와 사랑은 닮은 듯 다른 길을 갑니다
- 누나에게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길러냅니다
그것은 희디 흰 쌀알이 흰 떡으로 펼쳐지듯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의 진리입니다

시루와 사랑은 닮은 듯 다른 길을 갑니다
서로를 들고 씨름하듯 펼펼 찌다가
가끔 기적처럼 손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기 오른손으로 그가 쓴 일기가 있습니다
편마비 너머 편향을 넘어 편애의 시루를
사람들과 둘러앉아 펼쳐봅니다

“그리고 어제 헬레나가 노란과 적색 꽃 두 가지를 사다가 화분에 심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노란 꽃 적색 꽃 두 가지의 꽃
노란 꽃 두 송이, 빨간 꽃 두 송이

저는 당신의 딸이 네 명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향기가 납니다 보자기입니다 건네도 될까요
이제 손을 풀면 넉넉한 자유, 꽃다발입니다

흰 그릇 같은 다정함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참 많이도 떠받쳤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접째로 퍼주고 싶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면 그 안에 미래가 서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얼굴입니다 옥같이 깨끗한
얼굴을 양손으로 닦았습니다
얼굴의 미래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다
무력무력 겁내지 않고 닮아가는 것

거울을 보다 서로의 존재를 발굴하는 것

삼 일 내내 별이 좋고 풍부했습니다
가장 흔하고 부드러운 기적을 빛이라 합니다
가면서도 넉넉하게 밥상을 주는 자
줄 것 다 주고 환호하며 주걱을 보는 자
그 사람이 보고풀 땐 서로를 보셔요
가족은 얼굴이 번지는 물결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맑은 강이 이어집니다

눈부처

나의 아름다움을 너의 눈으로 보게 되다니 눈에 비친
모든 것이 연잎 같아서 강도 둥글고 산도 둥글고 칼마저
둥글어 네 눈 속의 나는 거대한 떡 반죽 같고 네가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후덕한 부처들, 여기선 송곳이나 카프
카조차 두부가 된다고 그 안온하고 둑근 세계에 나는 있
구나 그렇게 눈부처, 눈부처 보면 닮은 얼굴들 눈 붙여
눈부처 보면 가족이 비치고 왜 대학병원은 모조리 윗지
방에 몰려있는 거야 아픈 사람이 이렇게 찾아가야 해?
네가 투덜거릴 때 네 눈 속엔 하늘이 있고 오래된 숲과
역과 선로가 휘어져 있고 그 한가운데에 사슴이 서서 기
침을 한다 잘 다녀와 사슴의 코가 크게 부풀 때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이 입을 맞춘 것이다 네가 준 복숭아를 손
에 꼭 쥐고 기차에 오르면 눈부처는 뿔처럼 흘어져 창밖
에서 손 흔들며 입을 벌린다 잘 다녀올게 꼭 나아서, 복
숭아 먹을게 네 눈 속의 산과 마을 서서히 잠기고



고명재

시집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
산문집 『너무 보고풀 땐 눈이 온다』

여덟 시 반부터 다섯 시 반까지

톱밥으로 만든 합판에는 접착제가 쓰여. 섬유에 스며 개켜둔 빨래에서도 냄새가 나는 거지. 들숨이 아플 때도 있어. 너의 셔츠 안으로 얼굴을 부비는 거야. 섬유유연제 향과 톱밥 냄새와 향수향이 뒤섞인 살냄새가 콧속을 지나.

손 먼저 씻어야 부엌에 갈 수 있어. 갈색 거품이 일어난 세숫비누를 헹구느라 손에 남은 비눗기는 수건에 닦아내야 하는 건지 물에 흘려야 하는 건지. 머리카락을 끌여 놓거나, 검은 얼룩을 그냥 남기거나, 뾰송하게 두거나 했던 일들도 생각이 나는 거지. 잇자국이라고 여겼던 자국은 어느 날의 네 손톱자국이었지.

비닐 안에서 콩나물이 흥건한 갈색 액체로 변해 있어. 오후 일곱 시 반부터 오전 다섯 시를 지나도록 시린 열기에 떠 있던 것이지. 그런 일은 집 안의 음식들을 물러지거나 비리게도 하는 거지. 외등이 어둠 속에서 흘러다녔는데도! 정전일거야 하는 말은 잇자국이 난 비누덩어리 같은 것이야.

배추를 썰어서 멸치랑 끓여 두었어. 철물점에 다녀올 때 잠깐 졸았어. 까마귀가 합판 위에 오디 몇 알을 남기고 갔지. 횡단보도를 재빠르게 지나가서 놀랐어, 그건 모르는 일이지. 아마도 발주가 급했나 보다 싶어, 어쩌면 다급한. 콧물이 멈추지 않아, 그래 목덜미를 어미긴 했어.

우리는 각자 다른 시각에 탁자 앞에 앉아 있어. 탁자 아래에서 발등을 부비던 어느 날에 대해서는 아마도, 말줄임표를 지워야 하는 일이어서! 개키다만 마른 빨래더미에 얼굴을 박은 채 정전이 없던 시간대를 지나온 것과 손을 씻지 않고 부엌에 들어간 일은 말하지 않기로 해. 갈색 액체가 흐르던 외등에 대해서는 이미 말줄임표 변환 시기를 지났어. 다음에 하기로 해.

다섯 시 반부터 일곱 시 반까지

야채박스 안에서 양상추가 흥건한 갈색 액체로 변해 있었어. 냉장고는 정전 내내 열기에 뜨고 있었던 거지. 그런 일은 집 안의 사람들도 비리게 하는 걸 거야. 외등이 흔들리도록 장대비가 있었다는데, 기계 소리에 파묻혀 그런 줄도 몰랐어.

나의 셔츠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일은 없었으면 해. 페인트 냄새와 톱밥이 뒤섞인 살냄새가 콧속을 지날 거야.

손 씻는 일은 자꾸 잊어. 그러지 마, 목장갑을 낀 채 수저를 잡을 수도 있지. 조각도를 갈았어. 솟돌은 움푹 파여서 칼날이 가끔 손등 위로 지나가. 손에 남은 비눗기는 곧 벼릴 목장갑에 비벼 닦았어. 머리털 위로 수북한 건 스티로폼을 샌딩한 흔적이야. 마스크를 턱 위에 그냥 걸쳐 두고 몰두했어. 급하게 마신 커피 자국이 얼룩졌어. 그러지 마, 얼굴을 가까이 대지 마. 이건 비린내가 풍기는 일에 지나지 않아. 폭우가 오는 줄도 몰랐던 밤은 그저 물비린내가 좀 더 강해진 것일 뿐이야. 가까이 다가오는 일은 뾰송하게 둉굴곤 했던 어느 마른날을 생각나게 하는 거지. 그 자국은 어느 날의 잊자국이 맞아. 잠깐 졸았던 그때, 샤워기 물줄기 아래에 선 채로 식사를 하던 중이었거든. 그래, 치즈와 두부와 햄과 칼칼한 찌개가 있는 탁자 아래로 정강이를 걷어차인 날 말이야. 우린 맨발로 걷다 온 해변을 말하던 중이었나, 아. 말줄임표가 진행 중이던! 냉장고 안의 음식은 다 버려도 되지 않아? 굶지는 않아도 먹지 않을 거라면, 한참 전에 비워두어도 될 일이었어. 그래, 개키지 않아도 돼. 마를 때까지 갈아입지 않으면 되는걸. 얼굴을 들이밀지 마. 그 비누 냄새가 자꾸만 울렁거려.

합판 위에 오디 몇 알은 내가 그런 거야. 그건 모르는 일이지. 아마도 들고 다니다가 톱밥에 엉긴 손톱을 보았을 거야. 어쩌면, 손을 씻는 것보다 목장갑을 갈아 끼우는 게 나을 거라 여겼을지도. 목재를 더 잘라야 했거든. 그래, 목덜미를 여미긴 했어. 갈색 액체가 흐르던 외등에 대해서는 이따가 하기로 해.



김이忸

2020년 〈시사사〉 등단
시집 『더께』(2024 문학나눔 도서 선정)

기둥

견디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다모클레스
 보면 누구나 짓이길 무게를 머리 위에 두고 산다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자신을 가두고 빛조차도 가두고
 나는 조용히 견디는데 너희는 이제 그 안에서 무엇을 하지

가장 낮은 곳에서의 관찰
 어제와 같은 잿빛 세상에 인사는 없다
 섞여가는 곳에 나는 늘 다른 것이었으나 너희는 참 같다
 항상 견디는 존재를 피해 늘 더 높은 곳으로

하늘 가까운 곳 뭐 좋다 선택받은 것이 내가 아닐 뿐
 견디 아래 내가 견디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야 그나마 가볍다
 당연히 움직이지 않았건만 놓았던 적은 없어 쉼표가 멀다

사막의 별빛이 기억나지 않고 겨울에 앉았던 하얀 꽃은 잠시였다
 그것들은 모두 내 안에 녹아 가장 낮은 앙금들로 쌓였다 아니 굳었다
 나누어 가진 아픔은 큰 하나에 미치지 못해 모두가 관심이 없다

쓸어주던 파도의 거품처럼 되돌아 나를 파괴해 주기를 기다린다
 너희를 이해하는 최초의 순간에 나는 산산조각 깨어지겠지만
 그래도 묻는다 너희는 이제 그 안에서 무엇을 하지

폐어肺魚*

신은 없었기에 기원은 나눠 가지는 것
고수레로 버려진 한 줌의 숨을 안았다

잠겨있어도 무게에 의한 것은 아니니
시제 없이 걸쳐있는 경계란 그런 것이다

깊은 바닥으로부터 올려다본 수면
빗방울에 의해 수없이 두들겨저 깨졌다 붙은 세상
구름조차 제자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관심은 두어 본다

고요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어둠으로 감싸 침묵하나 고치로 한 겹 더
최초의 걸음은 오래전에 잊었으니 초점에 의미는 없고

스며드는 한 줄기의 빛
언제나 침범하기에 단절도 여기까지
가볍게 하는 것은 경계의 안팎 중 무엇인지

다가간 곳에서 세상 한 모금
그 아픈 입맞춤이 짧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 사는 민물고기.
폐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호흡하기 위해 종종 수면으로 올라온다.



장주호

2025년 〈한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서정의 서정⁶

신 현 정 시선집

빨간 우체통 앞에서



정가 12,500원
책은 교보문고, 예스24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운 이름, 그리운 시

- 1부 對立대립
- 2부 염소와 풀밭
- 3부 자전거 도둑
- 4부 바보사막
- 5부 화창한 날

죽어서도 살아 있는 그는 현재진행형이다. 그의 육체는 이미 흙이 되었겠다. 양 평 소나무숲의 솔새 한 마리 되었겠다. 그가 남긴 몇 권의 시집이 내 곁에 가까이 있다. 그가 남긴 불멸의 몸이다. 생전 그는 변방에 홀로 있었고, 죽음과 함께 놀 줄 아는 순정한 시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유명했다. 아는 이들은 안다. 그가 얼마나 고독하게 시와 더불어 살아왔는지를. 생전 제자도 든든한 우군도 없었지만 그의 시가 금강석 같이 오래 빛날 거라는 것을...

_홍 일 표 시인「나, 그냥 저 땅에 경배하고 싶어진다」 중에서

이 세 풍 시선집

세계의 砲彈포탄이 모두 별★이 된다면



그리운 이름, 그리운 시

- 1부 빵
- 2부 작은 평화
- 3부 채플린의 마을
- 4부 종이로 만든 세상

우리 젊은 그 시절, 물도 불도 무언지 모르던 그 시절.
활활 탄는 가슴으로 이곳저곳 참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던 시절.
영화의 한 대목처럼 문득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던 시인 이세룡
이제 그의 젊음을 다시 읽을 수 있다니.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그리운 사람이여, 그리운 시절이여

_윤석산 시인

서정의 서정⁷



정가 13,000원
책은 교보문고, 예스24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블로 네루다 :

몸의 언어로 쓴 외로운 터널의 길,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1904~1973)는 여러모로 매우 독특한 시인이다. 첫째, 그는 마치 모차르트나 베토벤 등 음악의 신동들처럼 어려서부터 시 쓰기에 천부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음악과 달리 대체로 독서와 세상 경험이 상당히 축적된 다음에야 높은 성취가 가능한 문학 장르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예외적이다. 그는 13세에 이미 시인이 되었으며, 열아홉 살(1923)에 첫 시집 『황혼의 책Book of Twilights』을 냈고, 스무 살(1924)에 두 번째 시집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Twenty Love Poems and a Song of Despair』(이하 『스무 편』으로 요약 표기함)를 출판하면서 칠레를 넘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시인이 되었다.

둘째, 그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이자 정치인으로서도 목숨을 건 실천가였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미얀마, 태국, 중국, 일본, 인도,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멕시코 등을 전전하며 외교관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1934년에 열성적인 공산주의자였던 델리아 델 카릴과 사랑에 빠진 후엔 죽을 때까지 평생 공산주의자로서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특히 1936년 그의 친구이자 심약한 시인이었던 가르시아 로르카가 프랑코 총독의 사냥개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의 정치적 개입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1937년에 스페인 내전의 희생자들에게 헌정하는 시집을 발표한 후엔 칠레 전역을 돌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 낭송회를 개최하였으며, 나중에 이를 자신의 문학 이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회고하기도 하였다. 1939년엔 스페인 내란으로 인한 망명자 수천 명을 칠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행정가로서의 탁월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 1904.7.12 ~ 1973.9.23)는 칠레의 민중 시인이다. 7, 8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여 13세 때에는 신문에 작품을 발표했다. 1920년부터는 '파블로 네루다'를 필명으로 쓰기 시작했다.

한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다. 1945년엔 공산당 상원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오랜 기간 망명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대통령 출마의 권유를 받기도 했으나 평생의 동지이자 친구인 아옌데를 내세워 그가 대통령이 되는 데에 크게 일조하기도 했다. 1973년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로 아옌데가 저격을 당하고 세상을 떠난 지 고작 12일 후에 그도 세상을 뛴다. 공식 사인은 전립선암이었으나 피노체트 정권에 의한 암살설도 유력하게 떠돈다. 1971년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연설에서 그는 “시인이란 연대의 힘이면서 동시에 고독의 힘이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연대”란 문학을 통한 정치적 개입을, “고독”은 문학을 통한 실존적 글쓰기를 의미한다. 그에겐 이처럼 문학과 정치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하나의 몸이었다.

셋째, 그는 세 번의 결혼 외에도 무수한 여성 편력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2018년 산티아고 국제공항의 이름을 네루다의 이름을 따라 다시 제정하려던 칠레 하원 문화 위원회의 시도는 인권 운동가들과 페미니스트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다. 문제의 발원은 네루다가 세상을 뜨기 2년 전에 집필했고 그의 사후에 출판되었던 회고록에서 비롯되었다. 네루다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1929년 스리랑카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에 하녀를 성폭행했던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한 사회 운동가는 이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네루다를 우상화하고 신비화하는 일을 멈출 때가 되었고, 그가 성폭행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유명한 예술가라는 사실이 그의 강간 죄를 면죄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작가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인 이사벨 아옌데Isabel Allende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칠레의 다른 많은 페미니스트처럼 나도 네루다의 사생활의 어떤 점들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글마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사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극소수만이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한다.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런 것처럼, 불행하게도 네루다는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시집 『모두의 노래Canto General』가 여전히 걸작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작가의 사적, 공적인 삶과 문학적 성취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논의는 파블로 네루다에게도 고스란히 해당이 된다. 심지어 어떤 논자들은 그의 두드러진 정치적 행위들 때문에 그가 시인으로서 실제보다 훨씬 높이 평가되어 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가 시와 정치와 성적 윤리의 문제 사이에 있는 ‘뜨거운 감자’인 만큼, 이 짧은 지면에서는 일단 신비평의 슬로건(Text itself!)에 기대어 그의 작품 자체만을 중심으로 『스무 편』을 읽어 보고자 한다.

『스무 편』은 그가 스무 살의 어린 나이에 쓴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높은 문학적 성취를 보여준다. 마초 스타일이었던 파블로 네루다와 달리 섬세하고 유약하기 짝이 없었으며 죽을 때까지 네루다와 아주 가까이 지냈던 시인인 가르시아 로르카는 네루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루다는 철학보다 죽음에 더 가까운 시인이었으며 통찰보다 고통에 더 가까웠으며, 잉크보다 핏물에 더 가까운 시인이었다.” 로르카의 말대로, 네루다의 시들은 관념보다 더 절실했으며, 지혜보다 몸의 신호에 훨씬 더 집중했고, 글쓰기라는 외양보다 핏물처럼 진한 진심의 기록이었다.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Colección Pablo Neruda, 2020.4.25)

오후들 속으로 몸을 숙이며
나는 너의 대양 같은 눈을 향해 나의 슬픈 그
물을 던지네.

거기 가장 뜨거운 불길 속에서 내 고독은 늘
어나고 불타오르며,
그 두 팔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의 팔처럼 허
우적대지.

나는 등대 가까운 바다처럼 움직이는 너의 텅
빈 눈을 가로질러
붉은 신호를 보내네.

나의 멀리 있는 여자여, 당신은 오로지 어둠
만을 지키고,
때로 당신이 마음을 쓸 때면 공포의 해안이
떠오르지.

오후들 속으로 몸을 숙이며 나는
너의 바다 같은 눈에 철썩이는 바다에 나의
슬픈 그물을 던지네.

밤의 새들은 내가 너를 처음 사랑할 때의 내
영혼처럼
눈부신 첫 별들을 쪼아대지.

밤은 어슴푸레한 자기의 암말을 타고
푸른 수술을 대지에 뿌리며 질주하네.

– 「오후들 속으로 몸을 숙이며」 전문
(이하 인용하는 네루다의 시는 영문판 『스무 편』에서
오민석이 번역한 것임)

『스무 편』에 나오는 사랑의 시들은 대부분 사랑의 예찬이라기보다는 슬픈 사랑, 망가진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만가挽歌에 가깝다. 그래서 이 시들은 대체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상실의 슬픔, 대책 없는 절망의 분위기로 어둡다. 위 작품도 마찬가지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변광대한 바다처럼 멀리 있고, 잘 보이지도, 포착되지도 않는다.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어슴푸레한” 그 대상을 향해 “슬픈 그물”을 던지는 것 밖에 없다. 첫 연에서 마지막 연으로 갈수록 시간은 “오후”에서 “붉은” 황혼의 시간을 거쳐 “밤”으로 이어진다. 날이 어두워질수록 “당신”은 더 잘 보이지 않고, “어둠 만을 지키고”, 어둠의 주인인 당신은 가끔 “공포의 해안”처럼 떠오를 뿐이다. 이 절망의 시간에 “밤의 새들”이 동터오는 새벽의 “눈부신 첫 별들을 쪼아대”는 모습은 얼마나 슬픈 아름다움인가. 잘 보이지 않는 “암말”을 타고 밤이 대지 위에 푸른 술을 뿌리며 질주하는 모습은 영원히 사라지는 사랑의 슬픈 뒷모습 같다. 네루다가 야관의 나이에 쓴 이 시는 이후 더 성숙해질 시인의 모습을 무슨 묵시록처럼 보여준다. 네루다는 일찌감치 추상적인 관념어를 피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 있는 사물을 끌어 들여와 몸의 감각에 충만한 것들로 그의 시들을 채운다. 그에게 자연의 물질은 정지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짐승 같다. 그것들은 흐르고 부딪히고 변화하며 시인의 정신을 내장內臟의 움직임으로 바꾸어 놓는다.

한 여자의 몸, 흰 언덕들, 하얀 허벅지들,
당신은 마치 굴복한 채 누워 있는 세계 같아.
내 거친 농부의 몸은 당신 속으로 파고들어
대지의 깊은 곳에서 아들이 뛰어오르게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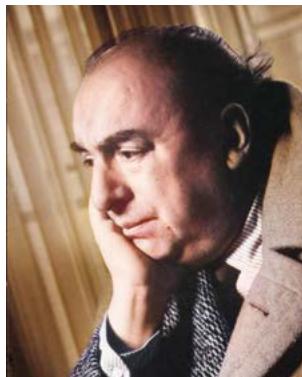
나는 터널처럼 홀로 외로웠어. 새들은 나로부터
도망치고,
밤은 참담하게도 침입하여 나를 뒤덮었지.
살기 위하여 나는 당신을 무기처럼,
내 활 속의 화살처럼, 내 투석기의 돌처럼 벼렸던
거야.

그러나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피부의, 이끼의, 간절히 열망하는 굳은 우유의 몸.
오 젖가슴의 술잔들! 오 부재의 눈들이여!
오 치골의 장미들! 오 그리고 슬픈 당신의 목소리
여!

내 여자의 몸, 나는 당신의 우아함 속에서 버티리.
나의 갈증, 나의 끝없는 욕망, 나의 계속 바뀌는 길!
영원한 갈증이 흐르고, 피로가 뒤따르며,
무한한 것들이 아파하는 검은 강바닥들.

– 「한 여자의 몸」 전문

네루다의 연애시 중에 아마도 가장 자주 인용되는 이 시 역시 네루다 특유의 ‘몸의 언어’를 잘 보여준다. 1연에서 그는 여성의 몸을 “흰 언덕들, 하얀 허벅지들”로 부각 하며 “굴복한 채 누워 있는 세계”라 정의한다. 그는 또한 자신의 남성성을 여성의 몸을 공격적인 자세로 파고 들어가는 “거친 농부의 몸”에 비유하며 그런 행위의 결과로 “아들”이 “뛰어오르게” 한다고 묘사하는데, 이런 묘사엔 그 자체로 남근 중심주의라는 혐의가 넘치고 넘친다. 여기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복종적인 몸으로 그려지고, 남성은 그것을 거칠게 공략하는 또 다른 몸으로 묘



파블로 네루다는 스물 살에 두 번째 시집『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를 출간하여 남미 전역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작가로 자리를 잡았으며, 1971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사되는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수행성의 산물 역시 여성이 아니라 남성(“아들”)이라는 사실이다. 1연에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자 동시에 남성성의 재생산을 위하여 “굴복한 채 누워 있는 세계”에 불과하다. 그런데 독자들은 이 시의 뜻을 이 정도에서 가두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의미소들이 이 시 전체에 걸쳐 깔려 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해야 한다. 가령 바로 이어지는 2연은 1연과는 전혀 다르게 패배와 절망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2연에서 화자는 과거형으로 자신이 ‘홀로 외로운 터널’ 같았다고 비유함으로써 1연의 행위가 서로 다른 타자들 사이의 행복한 사랑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화자는 1연의 행위가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새들이 그에게서 도망치고, 밤이 무참하게 자신을 뒤덮었다고 진술함으로써, 1연의 행위가 겉보기와 달리 승리나 정복이 아니라 완전한 패배였음을 실로 한다. 이어서 화자는 그의 행위가 일종의 도구화된 사랑으로서, 살아남기 위하여 “당신”을 자신의 “무기”로 남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3연에서 화자는 그런 엉터리 사랑에 대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재차 고백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여전히 그에게 ‘당신’은 영혼이 아니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젖가슴의 술잔들”, “치골의 장미들” 같은 육감적인 표현들이 그런 분위기를 더욱 고양한다. 마지막 연에서도 화자는 그녀의 “우아함”을 오로지 그녀의 몸에서 찾는다. 그렇지만 화

자는 몸에 대한 자신의 “끝없는 욕망”이 그 어떤 만족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고, 그를 “영원한 갈증”과 “피로”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죽음의 “검은 강바닥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임을 안다. 결국 이 시는 1연의 호기 어린 선언에도 불과하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남성의 욕망에 의해 결코 전유되거나 포획되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1연은 남근 중심주의의 유토피아적 풍경이고, 나머지 연은 그것이 처해 있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고백에 다름 아니다.

라캉의 말대로 인간의 욕망이 ‘타자에 대한 욕망’이라면, 이때 타자는 주체의 욕망이 만들어 낸, 주체가 투사한 판타지에 불과하다. 타자는 주체가 욕망하는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가 욕망하는 자리엔 오로지 주체의 주관성만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그 주체는 영원히 ‘홀로 외로운 터널’일 수밖에 없다. 이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시인이 1연에서 언급한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자는 자신이 타자에게 투사한 판타지를 파고들며 자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짧은 지면이라 길게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널리 보아『스무 편』은 자기 투사의 결과인 판타지로서의 여성의 부재에 직면한 남성 욕망의 생생한 절망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 절망은 유물론적 몸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욱 절절하고 진솔하며 아프다.



오민석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현재 단국대학교 영미인문학과 명예교수. 1990년 월간 『한길문학』 시 부문 신인상, 199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문학평론이 당선. 시집『굿모닝, 에브리원』 외, 문학평론집『이 흉랑한 날의 글쓰기』 외, 대중문화 연구서『나는 땀따라다: 송해 평전』, 『밥 딜런, 그의 나라에는 누가 사는가』, 번역서 바스코 포파 시집『절름발이 늑대에게 경의를』, 『오 헨리 단편선』 외 등 다수. 『단국문학상』, 『부석 평론상』, 『시와경계 문학상』, 『시작문학상』, 『평론문학상』 등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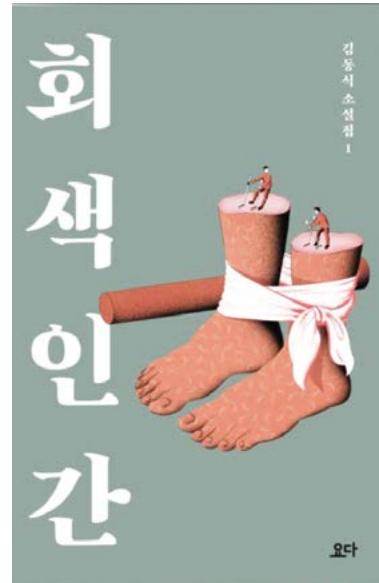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100쇄 문학 도서의 의미

최근 도서 시장에서 김동식 작가의 소설집 『회색인간』이 100쇄를 돌파했다. 주물공장 노동자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극적 도약을 이룬 한 소설가의 인생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단편들이 거느린 내적 서사일 것이다. 이 소설집은 작가가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올린 수백 편의 짧은 소설 가운데 24편을 추려 출판되었다. 그야말로 기상천외하기도 하고 아플 때도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인생의 만화경을 펼쳐낸 소설집이다. 2017년에 출간된 소설이 7년 만에 100쇄를 기록할 정도로 독자들 반응이 뜨거웠는데, 거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잠복해 있을 것이다. 우선 작가의 생애가 드라마틱하며, 그가 기성작가가 아닌 신인에 가깝고, 펴낸 곳 역시 인지도 높은 출판사가 아니라는 점이 다가온다. 그리고 단편 소설 한 편 한 편이 성취한 심리 묘사의 구체성, 경험 전달의 선명성, 사회 비판을 깔고 있으면서도 긍정과 희망을 놓지 않는 태도 등이 이른바 ‘피로사회’를 통과하는 독자들에게 크게 어필했을 것이다. 장편소설과는 철저하게 역주행하면서 짧은 여러 작품을 나란히 배치한 것도 요즘 독자들의 독서 관행에 맞았을 것이다.

이러한 베스트셀러는 대체로 대중의 문화적 욕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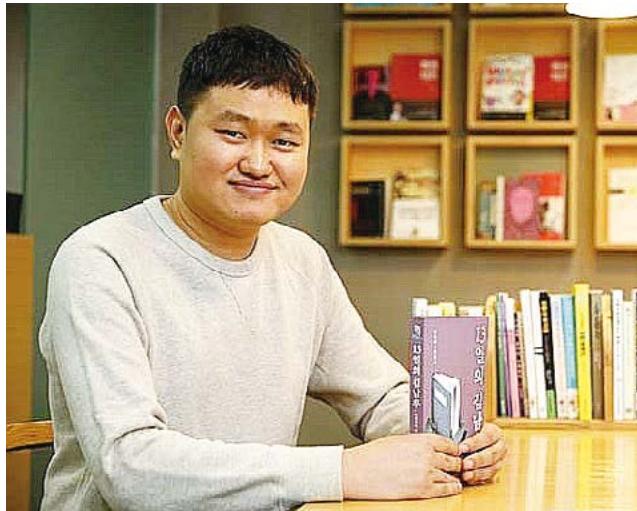


김동식 작가의 『회색인간』

자본의 부가가치 욕망이 결합되어 나타나게 마련이다. 어떤 작품이 이러저러해서 좋다는 소문이 나면, 출판사를 비롯한 유통의 주역들은 더욱 강화된 마케팅으로 판매 증가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작품도 스스로 확대 재생산의 파급 효과를 견지하게 된다. 이때 베스트셀러는 쓰여지지 않고 만들어진다는 반어(反語)가 성립된다. 어쨌든 어떤 작품이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는 현상은 한 사회의 중요한 정신적 지표이자 상품적 표지(標識)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베스트셀러가 반드시 ‘베스트 북’일 수는 없다. 광고와 상업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베스트셀러는 양적 베스트일 뿐 비평적 승인을 받은 질적 베스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간 꾸준히 사랑을 받으면서 팔려나간다면 그것은 스테디셀러로 몸을 바꾸면서 명작 반열에 오르게 된다. 김동식의 『회색인간』이 그러한 면모를 지속적으로 띠어가기를 희망해 본다.

문학 작품의 향유와 소비의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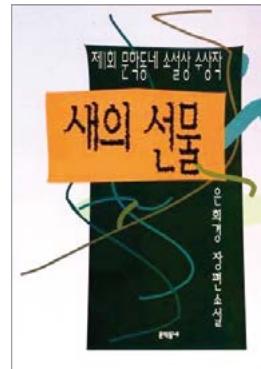
독서 인구 비율이 이웃나라 일본이나 서양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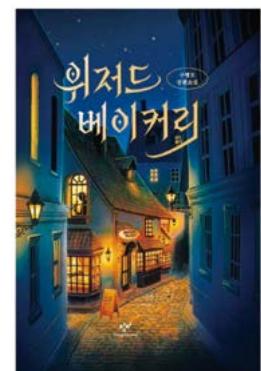
김동식 작가는 1985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태어났으나 출생과 동시에 부산 신선동으로 이사하여 사실상 고향은 부산이다. 가정 형편상 중학교를 중퇴하고 2000년 타일 붙이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구광역시로 올라왔으나 여의치 않자 PC방에 취직했다. 2006년 외삼촌이 일하는 주물 공장에 불려와 10년을 일했다.

(네이버 뉴스, 블로그 참조)

에 비해 언제나 뒤떨어진다는 통계가 일상화된 우리에게 이러한 기록은 꽤 신선하고 의외롭다. 은희경의 『새의 선물』, 구병모의 『위저드 베이커리』,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등이 100쇄 문학 도서 계보를 이어왔는데, 이러한 현상의一面에는 서사를 통해 위안과 치유의 순간을 경험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내밀한 욕구가 있었을 것이다. 가령 『새의 선물』(1996)은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린 주인공의 시선이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가는 여성소설이자 성장소설로서의 특성이 독자들의 반향을 일으켰다. 『위저드 베이커리』(2009)는 주인공 소년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성장소설이자 판타지소설인데, 그 안에는 사건 전개의 속도감과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특별히 충격적 결말이 신선하게 다가와 청소년소설의 한계를 벗어난 점이 통렬의 비결이었다. 『82년생 김지영』(2016)은 경력 단절 여성 주인공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페미니즘 소설이다. 1982년에 태어난 주인공이 겪는 취업, 결혼, 육아 과정을 통해 한국 여성들의 신산한 삶을 보여준 여성주의 관점의 작품이다. 페미니즘 담론이 한국 사회를 강타한 시점과 맞물려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작가들이 쓴 세 편의 소설은 한 사회의 보편적 공감을 얻으면서 100쇄라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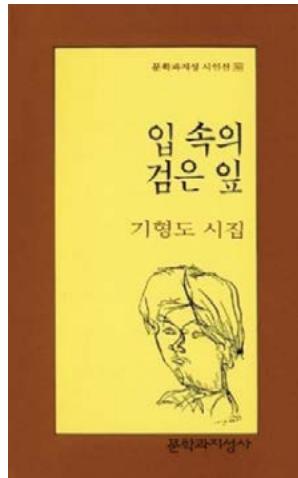
은희경 작가의 『새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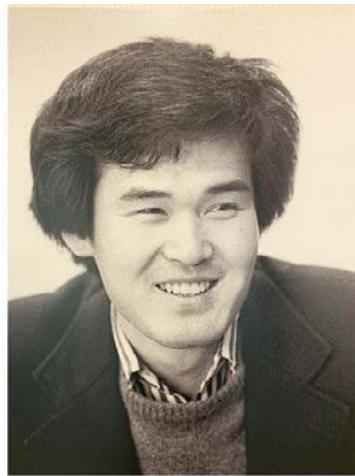
구병모 작가의 『위저드 베이커리』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좌: 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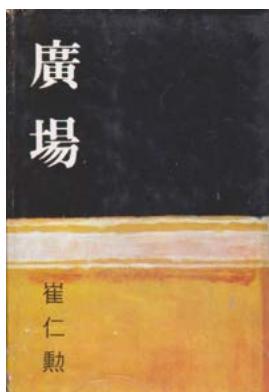
우: 기형도(奇亨度, 1960.3.13~1989.3.7)는 1960년 3월 13일 용진군 연평도에서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65년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현 광명시 소하동)로 이주했으나 학교는 서울로 통학하였다. 서울시흥초등학교, 신림중학교, 중앙고등학교를 거쳐 1979년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였다. 28세이던 1989년 3월 7일 뇌출증으로 사망하였다. 유고 시집으로 『입 속의 검은 잎』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가 있다.

시집의 경우는 어떠한가. 최근 기형도의 『입 속의 검은 잎』(1989)이 94쇄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원간 100쇄를 돌파하는 첫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집은 기형도가 타계하고 난 이듬해 출간된 유고시집이다. 발문을 쓴 김현이 '도저한 부정성'의 세계라고 집약한 아래, 가난한 청춘을 통과해 온 이들에게 한 시대의 비가(悲歌)로 각인된 시집이다.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시인 스스로의 내면에 대한 정직한 투시 위에서 쓰여진 시편들에 대중들의 애도와 환호가 겹쳐진 것이다. 또한 기형도는 시가 사회적 현상인 동시에 독자적 실재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말하자면 사회적 모순을 추적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감수성으로 착색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삼음으로써 가난했던 유년기와 청년기를 살아간 이들의 경험을 여실하게 보여준 시대적 축도(縮圖)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보통 베스트셀러는 독자에게 호감을 주는 대신 비평가에게는 외면당하기 쉬운데, 이 작품들은 시대가 달라져도 독자들은 물론 비평가들에게도 꾸준히 읽히면서 생명력을 이어온 사례에 속한다. 이때 독자들은 문학 작품의 향유와 소비의 주체를 이루면서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욕망에 충실한 불특정 다수를 뜻한다. 최근에는 문화 소비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들은 일률적 기율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자율적 단자들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어떤 시류나 중심이 형성되었을 때는 거기 편입되는 속도가 빠르기도 하다. 또 광고 같은 자본주의의 언어에 의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매몰되는 취약성을 가진다.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가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는 불확정성의 존재, 일상성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일상성에서 탈출하려는 욕구 역시 가지고 있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독자들이 이러한 100쇄 돌파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잘 쓰인 작품'들을 위하여

그동안 도서 시장에서 쇄를 거듭하면서 장기 스테디셀러로 지위를 굳힌 작품들은 최인훈의 『광장』이나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고전적 지위를 누리는 작품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대체로 '고전'이란 오랜 시간의 풍화를 견디면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새로운 충격과 감동을 주는 작품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오래전에 의미 있게 읽은 작품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도 이러한 고전으로 살아남아 우리에게 '오래된 새로움'을 선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동시대 작가들이 쓴 작품들도 비교적 단시간에 이러한 기록을 세워갈 정도로 우리 사회의 잠재적 독자층은 아직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고전'의 지위나 자격도 이제는 조정될



최인훈의 『광장』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고전은 빠르게 간신되고 대체되고 부가된다. 그런 의미에서 100쇄 돌파라는 기념비적 현상을 불러온 작품들은 동시대의 고전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잘 팔리는 책에 대한 경계심은 문학성을 진지함과 연결시키려는 고전적 위엄에서 나온다. 하지만 영화를 비롯한 자본주의 영상미학의 총아들에 의해 현저하게 위세가 꺾인 문학은 이제 담론적 확장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잘 팔린 책에 대해 '등급외판정'을 서둘러 내리는 평가절하식 태도는 유보해야 할 것이다. 문학성과 대중성은 더 이상 대립 범주가 아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귀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최근 범람하는 감각 지향의 문학 작품들에서 사람들이 '먹을 물'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지의 친숙성(intimacy)을 끝없이 재생산하면서 그것을 광범위한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광고 효과를 통해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문학을 술하게 대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 상품'이 아니라 '잘 쓰인 작품'을 고르는 혜안과 안목을 꾸준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유성호



1964년 경기 여주 출생.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지은 책으로 『서정의 건축술』 『단정한 기억』 『문학으로 읽는 조용필』 등이 있음. 〈대산문학상〉 등 수상

손바닥 소설 I

| 페니 챌린지

• 밤 보라

시리, 남편에게 전화해 줘.

오늘도 친절한 인공지능 비서가 지친 나 대신 전화를 건다. 통화음이 줄임표처럼 공중에 몇 개의 점을 찍다가 어느 순간 정확히 내 심장 소리와 겹친다. 고요하다 못해 주위가 딱딱하게 굳는다.

여보세요? 당신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의 목소리를 듣자, 턱까지 올라간 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여보, 나 지금 병원.

뭐? 병원?

쓸어진 숨의 질량이 가슴을 누르는지 입 밖으로 몇 마디 꺼내는 것조차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힘겹다. 그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유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 딱 두 문장이 다였다.

그는 분명 지금 휴대전화를 찾고 있을 거다. 마음이 급해지면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곤 하니까. 휴대전화 너머로 부산스럽게 들리는 온갖 소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면의 증거가 된다.

당신 휴대전화 지금 손에.



아, 맞다. 그래서 유니는 괜찮아?

몰라. 지금 중환자실에.

뭐? 중환자실? 많이 다친 거야? 어쩌다 그랬는데?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숨을 참았다. 사춘기 아이에게 감전 사고가 나리라곤 생각조차 못 했다. 보통 영유아 때는 콘센트에 플라스틱 커버도 끊어놓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지켜보고 있으니 그럴 일이 없었는데 다른 아이가 이런 사고를 당한 이유는 대체 뭘까 여전히 궁금하다. 학교에서도 안전 교육을 하지 않던가. 심지어 나도 여러 번 주의를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왜.

나 지금 가. 삼십 분 정도 걸려. 어디 좀 앓아서 진정하고 있어. 알았지?

그는 보이지 않는 내 심정을 읽은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여태 앓지도 못하고 병원 복도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하트가 그려진 분홍색 수면바지에 뒤



꿈치가 한참 남는 낭편의 나이키 슬리퍼, 고무줄 밖으로 미친년처럼 훌러내린 머리카락, 카드 지갑과 휴대전화 만 생명줄처럼 꼭 쥐고 있는 양상한 손까지. 그제야 다시, 잊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펑’보단 ‘퍽’에 가까운 소리가 유니의 방에서 났다. 콘센트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꽂은 채 까맣게 타 연기가 나오고, 아이는 각목처럼 그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 상황에 어떻게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아이를 옮겼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의사는 유니가 감전될 당시 다행히도 퉁겨져 나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다. 더 불어 전기가 들어간 곳은 찾았지만, 나온 곳은 못 찾았다며 하루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덧붙였다. 심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겉은 멀쩡한데, 내장에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누워 있던 먼 친척이 생각났다. 유니도 설마. 덜컥 겁이 났다.

시리, 난 내 딸이 죽을까 봐 겁이 나.

난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자신을 죄책감에 빠뜨리는 대신, 당신의 딸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그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벽에 기댄 등이 시려 둥글게 말렸다. 휴대전화를 잡은 손이 다 말라비틀어진 미라의 것처럼 보였다. 시리의 말을 몇 번 더 속으로 곱씹었다. 인공지능 비서가 지금 내 유일한 위로자며 격려자라고 생각하니 서글프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든든해졌다.

시리, 위로해 줘서 고마워.

당신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대화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 한 경우에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제법이야, 너. 사람보다 낫네. 시리의 말에 둥글게 말렸던 등이 조금은 느슨하게 펴졌다. 그리고 유니의 얼굴을 보기 위해 사진첩의 동영상 풀더를 열었다.

엄마, 이것 봐. 요즘 유행하는 철린지야. 잘 찍어줘야 해.

뭐 하는 건데?

팔굽혀펴기 스물두 개 하는 거. 하루에 퇴역 군인이 스물두 명이나 자살한다는 걸 알리기 위한 거야. 자, 이제 한다!

사춘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저 밝고 활발하기만 한 아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아이. 유니는 유독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저 중환자실에 누워 잘못하면 앞으로 어떤 감전 후 유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니. 만약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장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거라면 어쩌지?
다시는 이런 유니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걸까?

사진첩에 있는 마지막 동영상이 막 나오려는데 요란한 구둣 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빠르게 가까워졌다.

여보! 늦어서 미안. 요 앞에 차 사고가 났더라고. 그 차 요즘 자율주행 사고로 뉴스 많이 뜨던데 혹시 그런 건가? 아, 그런 얘길 할 때가 아니지. 유니는?

면회 시간 되려면 멀었어.

오자마자 차 사고 이야기라니.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지 복도에 놓인 의자에 철퍼덕 앉으며 답했다. 더구나 그는 내 옆에 앉아, 그렇게 애 좀 잘 보지 그랬냐는 등, 양가 부모님이 아시면 걱정하시겠다는 등, 좌다 날 탓하는 말만 기다랗게 줄 세우기 시작했다. 시리에게 당장 이혼 수속 밟는 법을 물어보고 싶다.

걱정하지 마. 뭐 큰 문제가 있겠어? 의사가 그냥 내일까지 하루만 지켜보자 그런 거라며. 그런데 어쩌다 감전된 건데? 콘센트에 젓가락이라도 꽂았어? 아님, 젓은 손으로 헤어드라이어라도 만진 거야?

그러게. 원인이 뭐지? 급하게 나오느라 겸게 타버린 콘센트만 대충 보고 나왔는데 과연 그 원인은 뭐였을까. 유니도 저 지경이니 물어볼 수도 없고.

어? 이 동영상 언제 찍었어? 못 보던 건데.

남편이 내 휴대전화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물었다.

오늘 아침. 유니가 자기 방에서 또 무슨 챌린지 한다고 발 잡고 구르는 거.

에휴, 허구한 날 그놈의 챌린지.

그는 늘 논제를 흐린다. 감전 원인을 물다가 또 금세 동영상으로 화제가 돌아가다니. 난 다시 휴대전화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동영상 속 유니가 발끝을 잡고 앞구르기를 한다. 그 깃개 뭐라고 꽤 열심이다. 그리고 몇 번 기우뚱하더니 결국 해낸다. 기분이 좋아진 유니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내 휴대전화가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을 가까이 대고 뭐라 하더니 곧바로 자기 방으로 사라진다. 그게 끝이다. 그런데 벽에 기댄 등이 다시 시려왔다.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얼마 후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일까. 난 다시 동영상을 앞으로 돌렸다. 그리고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어 귀에 갖다 댔다. 거실 티브이 소리에 묻혀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그리고 내 입술은 그 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천천히 따라 읊었다.

시리, 뭐 더 도전해 볼 게 없을까?

아이가 묻는다.

페니 챌린지는 어떤가요? 휴대전화 충전기를 콘센트에 반쯤 꽂은 뒤, 페니 한 개를 덜 꽂힌 충전기 부분에 갖다 대보세요.

시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다.

페니 챌린지 감전사고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면접자 주)



박보라

〈수필과비평〉 수필, 〈월간문학〉 소설 등단.
수필집 『나는 위험한 상상을 한다』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미주소설가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지부 회장

손바닥 소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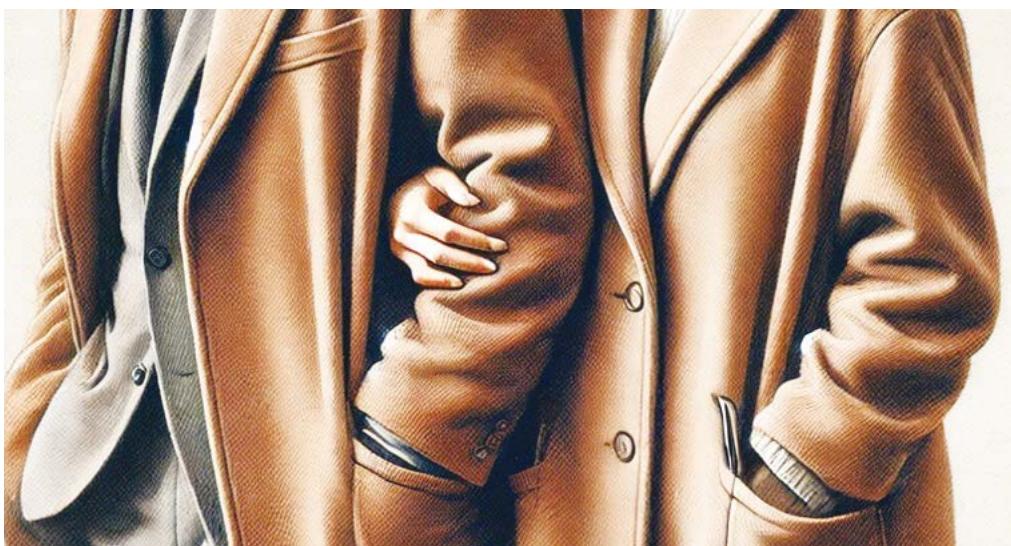
| 동행

• 정이 흐

오늘처럼 눈이 내리는 날이면, 아내가 생각난다. 아내는 길을 걷다 자주 넘어진다. 왜 그렇게 잘 넘어지는지 모르겠다. 아내 말로는 요즘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결혼하기 전, 처녀 시절에도 간혹 길에서 넘어지곤 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혹시 아내의 발이 작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물론 그런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오죽 잘 넘어지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아무튼 아내와 함께 걷다 보면 항상 신경을 써야 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여름보다는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에, 간 날보다는 비나 눈이 내리는 날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항상 아내에게 내 팔을 꼭 잡으라고 한다. 간혹 아내

가 내 팔을 붙잡는 것을 깜빡 잊으면 내가 아내의 손을 잡아서 내 곁 옷 주머니에 넣은 채 꼭 쥐고 걷는다. 그래야 그나마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아내는 걷는 것뿐 아니라 대부분 일에 서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일이 생기면 항상 나를 찾는다. 어떨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습관적으로 나를 부른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마치 옛날 남자들이 바로 옆에 있는 재떨이까지도 멀리 있는 아내를 불러서 자기에게 밀어달라고 했다는 식이다. 그렇지만 아내에게 별로 불평한 적은 거의 없다. 그냥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되니까. 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 심하다 싶을 때도 있다.



아내가 불러서 아내에게 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부른 거다. 그래도 아내가 부탁하는 일은 일단 해준다. 그리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으면, 책 일이 분도 안 되어 아내는 나를 다시 부른다. 그때는 나도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한다. 왜 시킬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말하지 않고 꼭 내가 아내 곁을 떠나면 다시 부르냐고 말이다. 물론 그런다고 아내가 나에게 미안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그러기에 왜 자기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곁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갔냐는 식이다. 아내의 그 말은 나에게 항상 아내의 시각적 사정권 내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말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한 번 더 짜증이 묻은 말투로 억울함을 호소해 봐야 그냥 아내는 배시시 웃고 만다. 그렇게 나는 또 아내에게 지고 만다. 허구한 날 나만 불러대고, 도대체 당신이 할 줄 아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다 그치면 아내가 웃으며 한마디 한다. “난 모든 일을 잘할 필요 없어. 그냥 ‘당신 시키는 일’, 하나만 잘하면 돼.” 하긴 아내의 생존 방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유일한 일은 나를 부리는 일이다.

아내는 외출을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실 아내는 화장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거의 기초화장이나 다름없는 정도로 가볍게 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지만 아내가 화장하느라 늦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밖에 나가면서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화장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재촉하지 않는다. 내가 재촉한다고 해서 아내의 화장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나의 재촉에 아내가 짜증을 낼수록 화장 시간은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가 화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고 나는 그냥 거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내 마음의 조급함을 덜어주면서 화장 시간을 당겨주는 일이다. 다른 일을 할 때는 뻔질나게 나를 불러대면서 화장할 때 만큼은 예외다. 하지만 아내가 잠잠할수록 나는 속이 더 탄다. 아내가 화장을 빨리 끝내게 하는 일은 나의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화장이 끝나면 그때부터 아내의 패션쇼가 시작된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할지 나에게 꼬박꼬박 물어본다. 사실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면 어쩌라마는 그래도 아내는 매번 묻는다. 밖의 기온에 따라 옷의 두께도 달라지므로 일단 긴 팔 짧은 팔, 얇은 옷 두꺼운 옷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색상도 결정해야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는 답답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함께 고민하는 척을 해준다. 어차피 아내 본인의 옷이므로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하지만,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봐야 어차피 자기



도 모르니까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라는 대답만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아니, 내 옷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직 나도 밖에 나가보지 않았는데, 그 옷을 입으면 추울지 더울지 짐작할 수 없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어차피 ‘오늘의 날씨’에서 알려주는 기온을 참작하든지,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창문이라도 잠깐 열어서 밖의 날씨나 기온을 직접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닌가? 하지만 아내가 그런 행위조차 내가 대신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십 년이 다 되어가는 결혼생활을 통하여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 그러나 아내가 그렇게 나에게 묻는 행위는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습관일지도 모른다.

아내가 화장을 끝내고 옷을 다 입고도 나오지 않기에 내가 방문 밖에서 서성이기 시작하면 또 짜증이 나게 놓아친다고 한마디 한다. 그러기에 누가 나보고 그렇게 일찍 외출 준비를 하라고 했냐는 것이다. 남자보다 여자의 외출 준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알면서 내가 알아서 아내의 준비 시간에 맞추어 준비하면 안 되는 것 이었냐는 뜻이다. 하긴 내가 외출 준비를 한다고 해 봐야 기껏 오 분 정도면 충분하긴 하다. 그러므로 아내의 화장이 끝나고 외출복을 결정한 후 내가 준비를 시작해도 아내보다는 훨씬 문을 먼저 나설 수 있을 것이므로,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다.

그런 아내의 외출 준비가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아내에게 조금 더 빨리 준비할 수는 없냐고 재촉할 수 없다. 그저 지금까지처럼 문밖에서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아무리 아내에게 저승길도 같이 가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다고, 그러니 내가 먼저 아내를 떠나더라도 혼자 가지 않고 문밖에서 기다려 줄 테니 늦지 않게 따라오라고 했다지만, 어떻게 이승 떠날 준비도 안 된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이제 기다리기에도 지쳤으니 빨리 나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오히려 아내가 예전처럼 굽뜨게 외출을 준비하길 바랄 뿐이다. 그저 내가 조금 더 기다리면 될 일이므로, 아내에게는 좋은 세상 한껏 더 즐기다 오라고 하고 싶다. 어차피 아내가 때가 되어 문밖으로 나오면 그곳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생전에 그래왔듯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 팔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자고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이흔

월간 〈열린동해문학〉 소설 부문 신인상. 〈시인투데이〉 시 부문 작품상 짧은 소설 모음집 『조여름의 기억』, 『위문편지』, 단편소설집 『섬』. 시집 『흘부린 먹물의 농담 닦은 강물이 흐른다』



갈로 서간 시 백해암

백분율

누구나 백분율은 갖고들 있겠지. 수직에서 점점 스러지면서 멀어지는 각도의 힘. 어디까지는 견딜 만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손쓸 수 없는 기울어짐이 되지만 바닥에 눕기까지가 가장 힘든 지점들이겠지. 그쯤 되면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에 대해, 제자리에 대해 의문이 생길 만도 하지만 버틴다는 말을 너무 크게 보는 경향들이 있다. 인간을 비롯한 여러 생물들은 지각하는 능력과 망각하는 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가령, 태양은 빠른 속도로 은하를 돌고 그런 태양을 따라가면서 지구가 맹렬하게 돌고 있지만 누구라도 그 속도로 인한 불안정한 균형에 대해 토로하지 않는다. 그것은 태양과 지구는 이미 인류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회전하고 있었고 인류는 그런 회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구라는 정속,

모두에게 공평한 속도를 일컬어 정속이라 한다면 그런 정속은 생물체들에게 차별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유독 나에게만 해당되는 속도가 아니라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속도라면 그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한들 굳이 인식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속도인 것이다. 다만 어느 순간 그 속도가 갑자기 멈추거나 느려진다면 그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정도를 달리해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모두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현상이다. 어찌 되었든 지구는 멈추지 않고 늘 정속으로 돌겠지만 그 정속이 불러온 계절을 앓는 생물체들은 많다. 계절을 잠시 미루어 놓는다거나 당겨쓰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러한 사정들로 인해 느끼는 것을 가속도나 감속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다.

벚꽃이 날리는 각도와 평사낙안의 각도는 칠십도
벚꽃은 바람의 소속이니 사인법칙으로 날리고
새들은 이륙과 착지에 탄젠트 법칙을 쓴다.
「벚꽃 잎과 깃털은 신문이 같아서 바람의 질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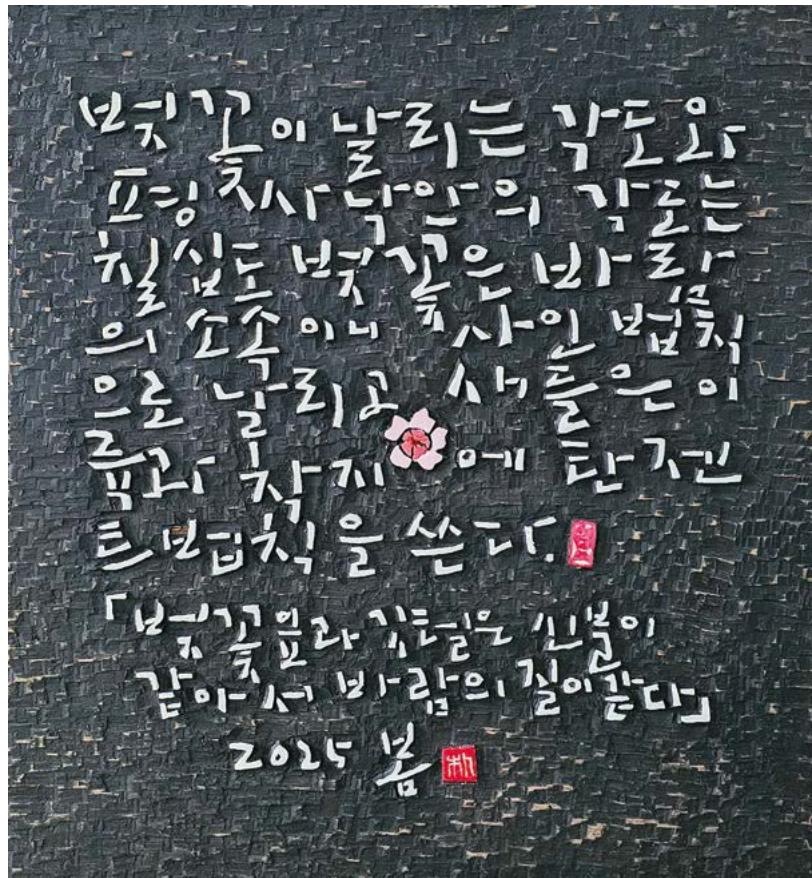
견디는 힘과 뺏기는 힘은 동일하지만 그 중간에 백분율을 허무는 경계지점이 있다.

벚꽃이 날리는 경사도와 새들의 평사낙안(平沙落雁)의 경사도는 같다. 이륙 없는 착륙을 일컬어 꽃잎들이라 하지만 기체도 동체도 이미 다 버린 낙화를 누가 즐거워하겠는가. 다만 처연(淒然)한 마음에나 데려다 쓰는 풍경일 뿐이겠지. 처연함도 제철이 있다면 단연 벚꽃이 날리는 이른 봄이겠다. 제철 별미를 찾아가듯 강둑에 줄지어 서 있는 벚나무들을 찾아 서성이는 철이 있고 그런 즈음엔 봄도 비스듬하게 오는 것 같고 흐르는 물소리도 비스듬하게 들린다. 어린 식물들도 처음엔 꽃꽃이 돌아나지만 이 계절세상이란 비스듬해지는 기술을 빨리 터득해야 변덕스러운 바람에 맞설 수 있다는 듯 금세 유연해지는 것이다.

내가 가진 힘보다 더 센 힘을 잡아당기는 일은 사실, 견디는 힘이라는데

– 졸시, 「철봉냄새」 중에서

가끔 견디는 각도에 대해 생각한다. 아니지, 견딜 수밖에 없는 각도를 놓고 모두 그렇게 견디고 있다고 위안 삼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에 부치는 일을 내 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생각은 또 자주 잊는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정속이 있지만 그런 정속에 가속을 더해 놓고 또 정속이라 믿는다. 정속은 점점 빨라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가 되지만 모두들 모른 척하겠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들이지만 모른 척하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겠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구의 정속은 너



무 느리고 그럭저럭 견디고 있다는 각도들을 살펴보면 모두 비스듬하다. 나도 비스듬하다고 느껴져야 안심이 된다.

공전 혹은 자전

떠올려 보면 자전한 기억보다는 공전한 기억이 더 많다. 가령, 스스로 자처해 도는 자전이란 코끼리코 돌기 같은 것일 것이다. 조금만 돌아도 어질어질하니까 자전은 내 회전반경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그 만큼 나를 위해 도는 일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에게 나는 서툴고 어색하다. 그렇지만 내가 장만한 내 집을 도는 공전은 하루도 한시도 멈추지 않는다.

고양이 몇 마리와 늙은 개 두 마리가 있는 집. 그리고

지난 늦가을 텃밭에 심은 양파를 겨울 내내 걱정했다. 다 자란 양파를 반으로 잘라보면 매운맛으로 자전한 흔적이 겹겹 있다. 보일러가 꺼진 집처럼 일정기간 저온을 견뎌야만 생육이 되는 양파들처럼 내가 공전해야 할 집엔 자전을 견디면서 매운띠를 두르고 있는 몇 명의 겹겹들이 있다.

박해람



1998년 월간 〈문학사상〉으로 등단
시집 『낡은 침대의 배후가 되어가는 사내』, 『백 리를 기다리는 말』,
『여름밤 위원회』

정택근의
이 세상 화

여섯 번째 이야기

노루귀

미나리아재비과 *Hepatica asiatica* Nakai



정택근의 야생화 이야기 _노루귀

지적장애인생활시설에서 야생화사진반을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을 모시고 들로 나갔습니다. “꽃은 욕심내어 많이 담을 필요 없어요. 먼저, 밟지 않게 조심하도록 해요. 그리고 때로는 꽃의 눈높이로 낮은 곳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주위에 누구랑 같이 살고 있나 확인하며 담아도 예쁠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아이가 노루귀라는 꽃이에요. 사진을 담기 전에 말을 걸어보고, 한 번 쓰다듬어도 보세요.”

덩치가 크고 힘도 세서 흥분하면 어느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중증장애 한금석 님도 일행과 함께 제 설명을 다 듣고 혼자 떨어져 한참 동안 사진을 담았습니다. 돌아와 컴퓨터 저작업을 하다가, 당신의 신발과 함께 꽃은 찾아야 겨우 보일 듯 작게 담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왜 이렇게 담으셨냐고 물으니, “발 앞에 꽃이 있어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꽃에게의 다가감을 이처럼 충돌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구도를 계산하고 태양의 위치를 살피며 온갖 기교로 담았던 어떤 사진들보다 뛰어나고, 지금껏 보았던 노루귀 사진 중 최고의 사진이었습니다.

노루귀는 미나리아재비과 여러해살이 식물로, 학명은 *Hepatica asiatica* Nakai입니다. 노루귀의 속명 *Hepatica*는 간장(肝腸)을 뜻하는 *Hepaticus*에서 유래한 것으로, 꽃이 편 뒤 말려서 피어나는 노루귀의 잎이 마치 인간의 간과 닮아서 생긴 이름입니다.

꽃은 보통 3월에서 5월까지 아직 잎이 나오기 전에 피며, 크기는 지름 1.5cm가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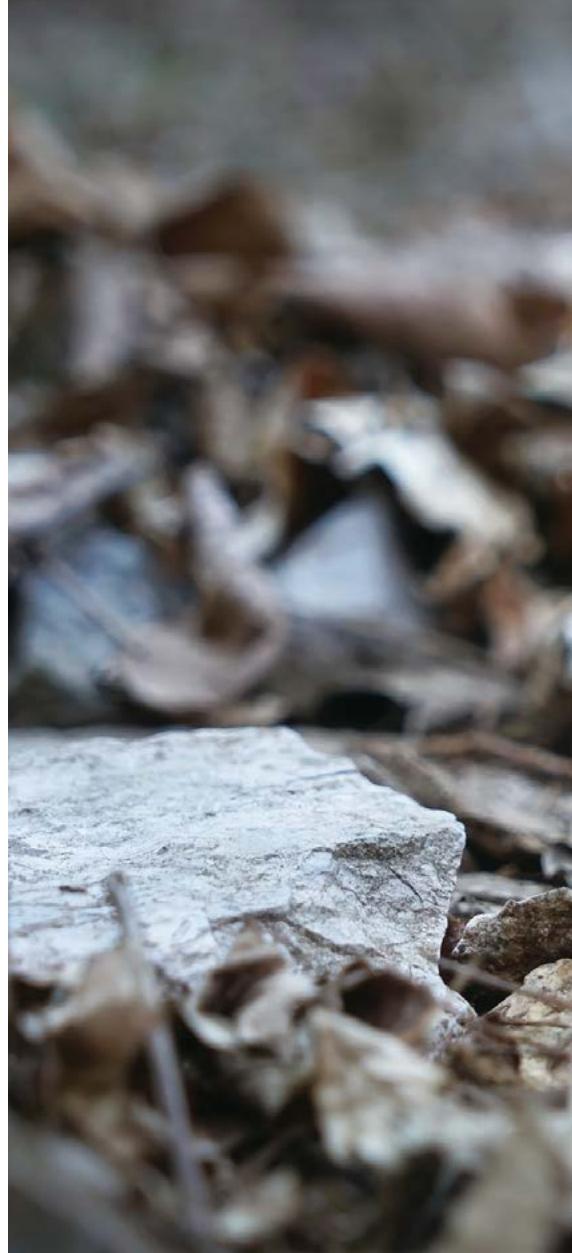


색은 흰색에서부터 미색, 연한 분홍색, 진한 분홍색, 청색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데, 꽃잎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은 꽃 받침조각입니다. 보통 6~8장으로, 꽃잎의 역할을 대신하여 곤충을 유인하고 꽃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꽃잎이 없고 생존에 극히 제한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그럼에도 이렇듯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척박한 곳에서는 개체 자체가 작게 변형된 새끼노루귀로, 또 울릉도와 같이 부식질이 풍부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개체가 크고 상록성인 섬노루귀로 진화하여 유사종으로 갈라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루귀 -한금석



노루귀의 꽃말은 ‘인내’와 ‘신뢰’입니다. 아직은 봄이라 하기 이른 3월, 지난해 떨어진 낙엽들로 온통 갈색 바닥인 숲에 작고 여린 노루귀가 보석처럼 미색과 여린 분홍색과 짙은 분홍색, 그리고 청색의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면 절로 인정하게 됩니다.

한금석 님, 오래 함께 생활하지는 못했지만 꽃을 대하여 공격성이 많이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드넓은 잔디밭의 잡초를 바라보며 예초기
로 작업을 해도 두세 명이 이틀은 걸리겠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보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이 혼
자 낫으로 작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끔씩 꽃에 사로잡
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는 모습도 보
았습니다. 그분의 오늘을 믿고, 오래 기다리고 싶습니다.

* 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참조했습니다.

농부, 생태사진작가 정택근

당진시립노인요양원장, 지역장애시설인 〈예닮원장〉,
〈충청남도노인복지협회부회장〉 등 역임
<https://www.facebook.com/taekgeun.jung/>



윤성택의

불씨 | 하나 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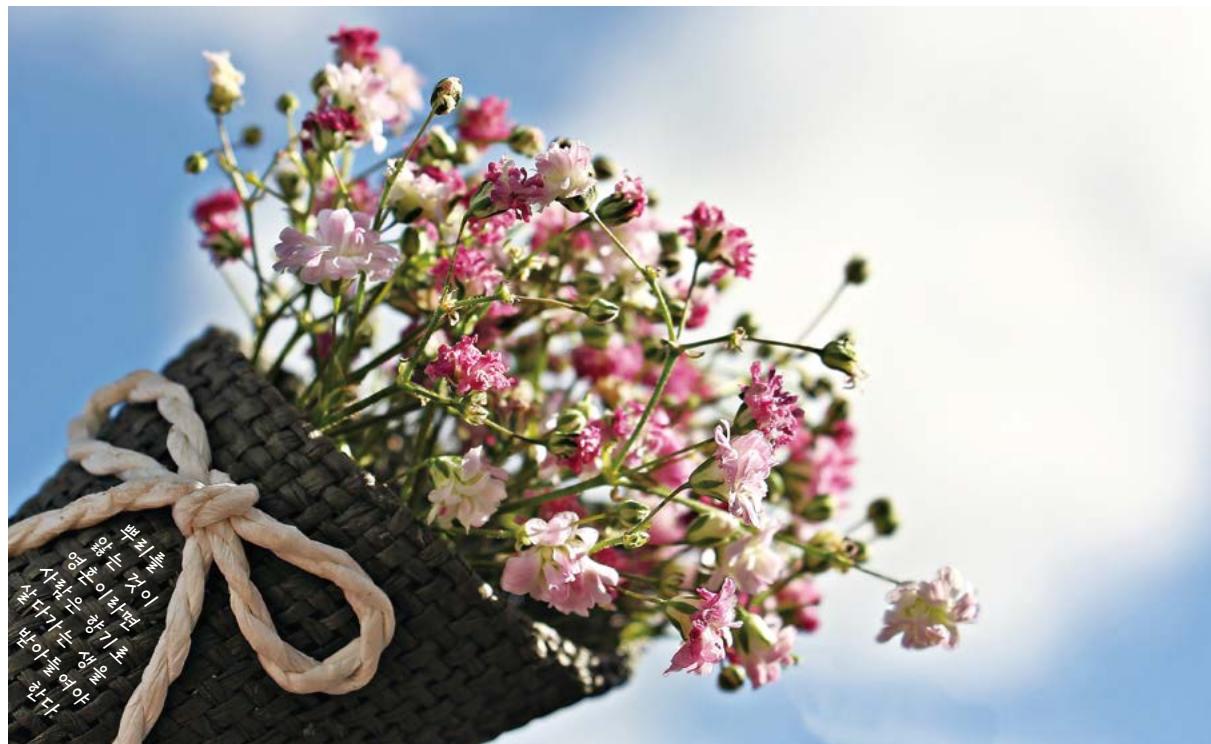
화원에서 한 시간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한다는 화원에 간 적 있다. 지하 철 입구 빌딩 1층의 널찍한 매장 유리문을 열고 한 발 내 디뎠을 때 꽃향기가 은은한 음악에 묻어 흘러나왔다. 흄 흄, 꽃에게 있어 향기란 꽃잎의 기공이 열리면서 방출되는 입자의 음악이 아닐까. 각기 자신만의 연주로 성분과 성질이 다른 향을 이어간다고. 통화 중인 친구는 쭈뼛 서 있는 나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곤 주문을 받느라 수화기를 한쪽 어깨에 끼운다. 사방에 번쩍거리는 비닐 포장지와 꽃 화분들, 플라스틱 통에 가득 담긴 오색들이 화사하다. 장미 한 송이의 새빨간 잎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은 분무기로부터 비롯되었겠지만,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세상이 환상처럼 들어 있는 듯하다. 튤립의 부드러운 꽃받침도 촉촉해져 있고, 백합의 깨끗한 흰색은 조도에 따라 은은한 빛을 띤다. 국화나 수국도 습기를 거느린 채, 고유의 색을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다.

친구는 차를 마시자며 나를 매장 안쪽으로 안내했다. 친구의 얼굴 윤곽에서 나는 기억의 한 지점이 빛으로 다가오는 것을 본다. 전기포트 옆 긴 탁자에 초록색 스펜지 덩어리들이 놓여 있는데 일명 '오아시스'란다. 원래는 플로럴 품이지만, 꽃꽂이를 만들 때 물을 머금어 줄 수 있는 매개로 쓰이기에, 꽃들의 오아시스라 부른다고. 꽃들은 뿌리를 망각한 채 수분을 보내는 덩어리가 자신의 무덤이라는 걸 모를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신기루 같을까. 비닐에 가린 아래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믿는 꽃이 겪는 허상. 사람도 그렇다. 단단하다고 여겼던 삶의 기저가 결국 하나의 의지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 그 의지가 사라지면 비로소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가 흔들리고, 믿었던 희망은 신기루처럼 아득해지리라. 그러니 삶은 뿌리를 잃고서도 여전히 피어나야만 하는 꽃들과 같지 않을까. 뿌리를 잃는 것이 영혼이라면 사람은 향기로 살다가는 생을 받아들여야 한다.



꽃집 아르바이트를 하다 꽃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화훼장식 자격증을 따 플로리스트가 되었다는 친구. 차를 마신 뒤 대화를 하면서도 손은 바쁘다. 포장대에서 도매시장에서 온 꽃들을 가위로 자르고 있다. 줄기를 사선으로 잘라 물에 닿는 면적을 넓히는 '물 오름' 작업이란다. 길이가 조정된 꽃대는 분무기에 흠뻑 적셔져 포장 비닐 속에서 반짝인다. 규격화된 꽃들, 가지런히 진열되어 누군가의 간택을 기다릴 것이다. 친구는 여럿 중 하나의 꽃다발에 누구든 3초간 눈길이 머물면 사 갈 확률이 70%쯤 된다고 했다. 눈이 마주친 그 순간이야말로 꽃에게는 꽃눈을 트워 이름을 가지게 된 때로 돌아가는 거겠다. 그것이 결국 자신이 존재했던 이유를 증명하는 순간일 테니까. 그렇다면 화원에서의 축하와 감사, 혹은 위로와 애정은 전하는 게 아니라 피는 것인지도. 꽃다발을 안겨 줄 때까지 감정의 일부로 있다

가 향기로 열리는 말이 될 것이다.

화원의 꽃들은 농장에서 처음 썩을 틔우고, 천천히 꽃망울을 맺어갈 때부터 이미 여정은 시작된다고 한다. 완전히 활짝 피어버리기 전에, 택배 트럭 혹은 냉장 차량에 실릴 준비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화를 앞둔 상태의 꽃들은 포장되어 도시로 향한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이때가 꽃들의 멀미가 시작된다고 한다. 덜컹거리는 짐칸에서 어지러워 울렁거리다 꽃망울이 조금씩 벌어져 향기를 게워 낸다고. 우스갯소리였지만 솔깃했다. 나중에 사람의 일생도 멀미의 여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렁거리는 슬픔이 조금씩 벌어져 눈물과 울음을 게워 낸다는. 꽃은 꺾이기 위해 피고, 시들기 위해 가장 만개한 순간을 견딘다. 결국 화원이란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움을 사고파는 장소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라진 마음을 불러내는 기억의 장소일지 모른다.



이 내리쬐어도, 이곳 화원만큼은 언제나 봄이다. 봄이어서 꽃들은 아직 들어서지 못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친구는 역시나 플로리스트를 꿈꾼다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화원을 맡기고 가방을 챙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본 사이여서, 서로의 삶이 어떻게 이곳에 닿았는지, 어떤 계절을 지나왔는지 그저 웃으며 이해하려는 마음이 앞섰다. 우리는 유리문 밖으로 걸어나왔다. 아직은 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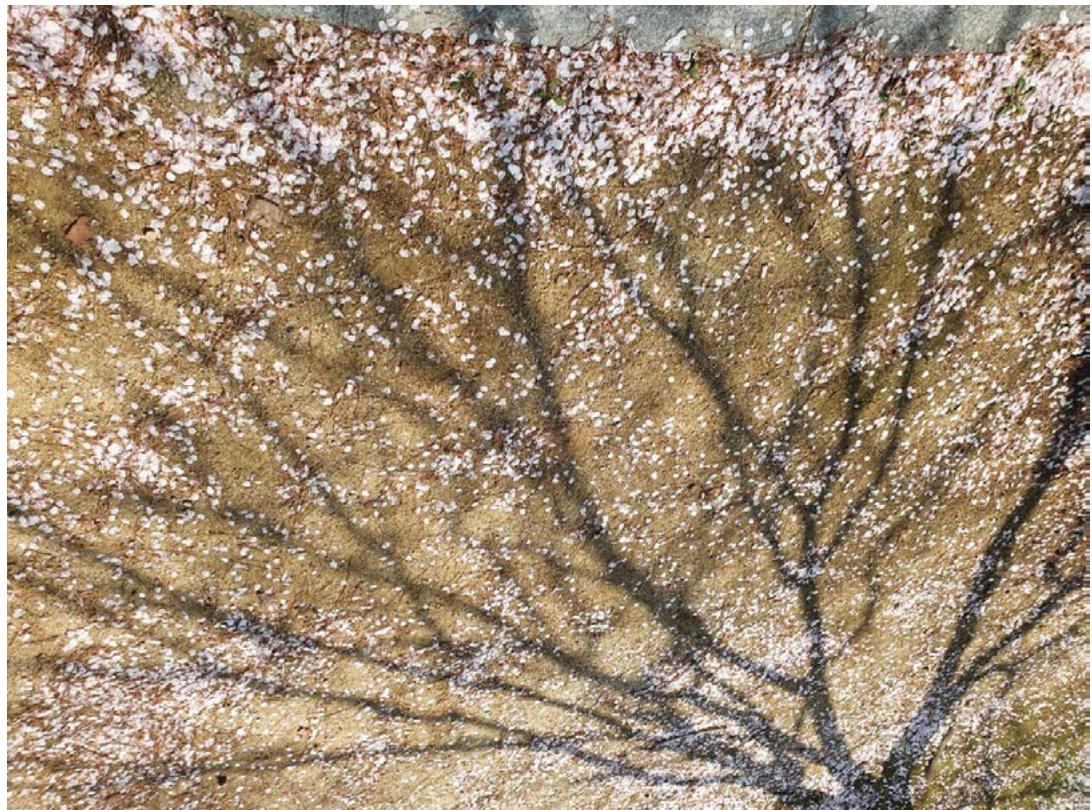
유리문 밖에서 사계절이 묵었다 풀려 가는 동안 화원은 오직 하나의 봄만이 꽃들을 떠나보낸다. 꽃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배웅이면서 다른 계절로 향기를 남기는 것이리라. 그동안 친구에게 전화로만 주문하고 배달을 부탁했던 백여 개의 화환과 꽃바구니들, 비록 한때 내가 해야 할 업무의 일환이었지만, 그것을 받는 이에게는 말을 대신할 따뜻한 기별이었을 것이다. 눈보라가 휘날리거나 뜨약볕



윤성택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2001년 〈문학사상〉 등단. 시집 『리트머스』, 『감(感)에 관한 사담들』, 산문집 『그 사람 건너기』, 문문집 『마음을 건네다』.

| 위로가 있어서 환한 봄날



벚꽃 잎 떨어져 제 어미 위에 누웠다
이승을 떠나지 못한 한(恨)이 피었다

사월의 꽃처럼 스러지다 _손설강

디카시집 『오늘은 디카시 한잔』 중에서



느닷없이 뒤집힌 삶을
연이라 위로하면
차마, 죄가 될까

우산수련 _김석윤

지난해 매듭달에 무안 여객기 사고가 있었다. 179명의 무고한 인명이 한순간에 별이 되던 날 티브이 화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애도 기간 중에 새해를 맞이했다.

눈송이가 내려와 녹듯 꽃잎이 바람에 흘날리듯 귀한 생명은 쓰러지고 벌써 한 계절이 지났다.

꽃이 피면 지는 날이 반드시 있다지만 참 서럽고 슬픈 일. 삶은 수시로 잔혹한 한(恨)을 피우곤 한다. 가지에 내려앉은 꽃잎들을 제 어미는 하릴없이 놓아주어야 한다. 해가 지고 허상마저 사라지면 저 숱한 영혼들 바람에 날려 어디로 가야 하나.

배나 비행기 참사가 아니어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슬픈 일이 파도타기를 한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손수건을 건네는 일도 따뜻하지만 곁에 앉아 호흡을 같이하고 공감해 준다면 한결 가벼워질 터이다. 비에 젖은 사람은 우산을 씌워줘도 젖은 채로 걸어야 한다. 어차피 흠뻑 젖은 몸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같이 비를 맞아 주란다. 온전히 상대방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같이 젖어 보고 느낌을 공유한다면 세상에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겠지.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어느새 비가 그치고 해가 날 거다.

늦겨울부터 매화가 피고 복사꽃 진달래가 줄을 이으



고독한 사람에게 웃어주는 건
슬그머니 핀 겨울꽃 같은 거다

봄을 여는 실마리 되어
누군가의 문을 열어주는

웃는 당신은 _송재옥

며 봄은 온다. 지금 화사한 봄은 왔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깊게 앓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꽃처럼 향긋하게 지어준 미소로 힘을 얻는다면 좋겠다.

디카시는 생활 문학이다. 꽃이 괴면 그냥 예쁘다는 생각에서 조금만 골똘해지면 꽉 달힌 누군가의 겨울 문이 스르르 열리기도 한다. 내가 응축된 슬픔을 풀지 못해 웅크리고 있을 때 손 잡아준 미소가 있어 허리를 편

적이 있다. 나도 모르는 새에 핀 겨울꽃이 마치 그의 미소 띤 손길 같아서 디카시로 썼다. 평범한 것들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눈으로 화사한 봄날 한 사람이라도 더 웃으며 살아가도록 서로에게 따뜻한 꽃이 되자.

고독한 나에게도 웃음을 들여놓으며 너무 앞만 보고 내달리지는 않으려 한다.

오리텅스 블루의 「사마」을 읽으면 위로는 얼마나 가



(사진은 편집자 제공)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사막 _오리텅스 블루

까이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지 절감한다. 자신의 발자국
이나 미소처럼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것들을 놓치지 않
고 살 일이다.



송재옥

제8회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 디카시 수상. 2025 〈대구신문
신춘디카시〉 공모대전 최우수상. 디카시집 『소리의 그림자』

靑, 시로 듣다

신지영

밥이 되지 않는 일

할머니가 싼 도시락을
일렬로 놓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거라고 했다

연년생 딸 셋이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점심에, 야자 도시락까지—
할머니는
하루에 도시락을 여섯 개씩 쌌다

할아버지는 또 막한 밥을 좋아해서
아침, 저녁 따로 솔밥을 했다.
할머니가 뜸 들인 솔밥을
차곡차곡 쌓으면
남산타워도 넘을 거라고 했다

가로, 세로로 신기록을 세우며
밥을 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자신을 위한 밥을 지은 적이 없었다.
항상 가족이 남긴 것으로 만족했다

할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돈도 못 버는 무능한 여자라고
매일 구박을 했단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서

할머니는 따지지도 못했단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시집보내고,
남편이 신입으로 들어가
퇴직을 하고 나서도,

할머니의 밥 짓는 일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일이었다.
할머니가 지은 그 많은 밥들은
밥 짓을 쌀조차 살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깎다

최고의 미용사가 되려면
'깎다'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해.
그래서 뭐든지 다 깎아봤지

사과껍질도 조심스레 깎아보고,
손톱도 짹둑 짹둑 깎아보고,
동네 옷가게에서 바지 값도 깎아봤어

그런데 말이야,
깎으면 깎을수록 더 모르겠더라
도대체 '깎는다는 것'은 뭘까?

동생이 학원에서 배운 기술로
머리 좀 깎아 달라고 조르길래
어쩔 수 없이 가위를 들었어

눈을 찌르던 앞머리를
눈썹 위로 썩둑— 올려주니
동생 눈이 보이는 거야

신기한 듯 나를 바라보는
커다란 눈동자

째액 웃는 동생을 따라
찰랑찰랑
머리카락도 기분 좋게 흔들렸지

그때 알았어
아, 나의 '깎다'는
상대의 눈을 보기 위한 것이었구나

엄마는 택시 드라이버

키 158

발사이즈 235
좁은 어깨, 작은 손
웃으면 꽃보다 활짝 피는 사람

그런데 말이야,
도대체 차는 누가 만든 걸까?

엄마에겐 너무 커
마치 자기 몸보다 두 배쯤 큰 옷을 입은 사람처럼
커다란 차를 걸치고 운전하지

차 안에서 엄마는 문제아가 된다.
언제나 빼딱한 자세를 만들 수밖에 없지

페달을 밟으려면 다리를 당겨야 하고,
허리를 쭉쭉 빼야 겨우 계기판이 보이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차를 만든 걸까?

몸이 작은 사람을 위한 차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에
엄마는 천생연분 같은 차를 만난 적이 없어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차를 몰고
차의 비위까지 맞춰가며
엄마는 오늘도 택시 드라이버

억지로라도 웃으며,
우리가
먹고,
쓰고,
입을

그 귀한 돈을 벌어오네

신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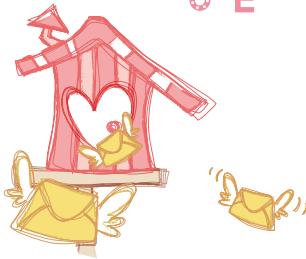


웅복합 예술 프로젝트그룹 〈우리, 봄〉의 대표. 2009년 『푸른문학상』 '새로운 작가상', 2010년 '새로운 평론가상' 수상. 창비 〈좋은 어린이책 기획 부문〉 수상, 청소년 시집 『넌 아직 몰라도 돼』 외. 청소년 소설집 『프렌즈』 외. 동화 『안믿음 쿠폰』 외. 동 시집 『지구영웅 패트병의 달인』 등과 인문교양서 『너구리판사 풍풀이』 외 다수.



♡
♡
♡

사랑을 전하는 편지



봄바람이 간지럽게 불니다

장혜진

기 바쁩니다.

박오식 씨는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합니다. 급하게 출근을 서두르느라 면도를 하다 말았는지 턱 군데군데 수염이 빠죽 남아 있고 콧구멍 속에서 코털이 빠죽 나온 모습으로 인사를 하네요. 나는 얼른 박오식 씨에게 면도를 다시 하고 코털 제거기로 코털을 깎고 출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속도보다 코털 자라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게 참 신기하죠? 유독 박오식 씨는 코털의 성장이 빠릅니다.

직장인은 위생이 우선이라고 나는 잔소리를 한바탕 하는 중인데, 조금 단정해진 박오식 씨가 출근하는 무리에 섞여 현관문을 지나 시설의 출근 차량에 재빠르게 탑승합니다.

어우~, 수다쟁이 박오식 씨는 차에 올라서자마자 바로 차 창문을 열고 기어이 또 한마디 하고야 마네요.
“잘 다녀올게요오~~ 이따가 봐요오~~”
“네~~ 잘 다녀오세요. 추워요. 얼른 창문 닫으세요.”

이른 봄이 종종걸음으로 오느라 아직은 바람이 찹니다.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하는 분들과 오후에 출근하는 분들을 합치면 이 시설에는 대략 열 명 이상의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닮원 2층에서 내려와서 신발을 신으며 출근한다고 나눈 인사와 차에 올라서 출발할 때까지 이어지는 풍경



〈예닮원〉 시설거주자 박오식 씨

아침에 출근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모두가 (아니 몇몇은 애은 채로 멀뚱한 눈으로 나를 바라봄) 일어나서 배꼽에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인사를 합니다.

나도 가지런히 양손을 배꼽에 대고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합니다. 아주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며 입소자들과 눈을 맞춥니다.

밤사이 잘 잤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었는지, 한 바퀴 둘러봅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밤사이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들을 아주 중요한 일인 양 고해바치며 자신을 편들어 달라며 과장해서 말하



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박오식 씨가 수다쟁이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분들이 시설 거주자를 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덜 어려운 분들이니까요.

싫고 좋음의 표현이 명확한 분들은 종종 아니, 자주 함께 사는 분들과 말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오식 씨는 무연고에 가까운 분이라서 사실 외로움도 많이 타고 누군가에게 정을 주면 듬뿍 주는 성격이라 상처도 잘 받는 분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잔소리와 참견하는 습관이 있어서 매번 언성을 높이지만, 올해 쉰아홉이 되었는데도 아이 같아요. 조금만 인정받으면 좋아하고 톡하면 빼치고 소리 지르며 화내고 그러다 또 순해지고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지만, 밝은 성격이랍니다.

또 얼마나 다행이에요. 천성이 밝으니 이 길고 외롭고 쓸쓸한 사고무친의 삶을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단순한 작업이지만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어엿한 직장인으로 출근하면서 매달 적금도 꼬박꼬박 넣으며 돈이 모이면 집을 장만하고픈 꿈을 키우는 박오식 씨.

오늘도 박오식 씨는 직장에서 퇴근하고 시설로 돌아와서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한00 씨에게 괜시리 시비를 겁니다. 가만히 있던 한00 씨 또한 지지않으려고 곱지 않은 말을 쏟아내요. 두 분이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했습니다. 나는 싸움을 말리며 눈을 훑겼지만, 돌아서며 또 웃습니다. 잠시 후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서로 잘 지낼 것을 알기에...

아, 또 하루가 잘 지나갔습니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데 어른인 저분들은 키가 더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봄이 아직 저만치 오는 모양입니다.

간지러운 바람이 불니다.



〈예달원〉 앞에서, 장혜진 님과 박오식 씨

장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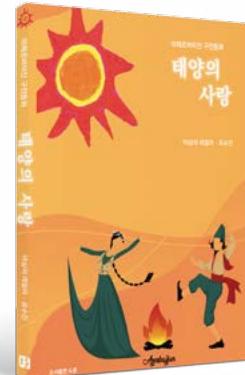
장애인 인권강사. 영원군청 명예기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예달원〉(영월)에서 근무 중



아제르바이잔 구전동화

태양의 사랑

마심리 레일라 · 유수진



여우, 여우, 교활한 여우

옛날 옛날에 늙은 여우가 한 마리 살았다. 어느 날 늙은 여우가 꼬리를 자기 등에 올리고 먹을 것을 찾으려 어슬렁거리다가 구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여우가 고개를 숙여 구덩이 속을 들여다봤더니 구덩이 바닥에 양 엉덩이살이 떨어져 있었다. 여우는 기뻐하며 등에 업고 다닌 자기 꼬리를 땅바닥에 털썩 내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잘 되었다. 참 잘 되었어. 저 엉덩이살을 다 먹어 치우기 전에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운이 좋단 말이야.”

여우가 입맛을 다시자 여우의 입가에 침이 고여 흘렀다. 엉덩이살이 마치 여우 할아버지, 여우 할아버지, 어서 내려와서 나를 먹어 봐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여우는 뭔가에 흘린 듯 더 참지 못하고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쿵 소리를 내며 여우가 구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구덩이의 깊이가 여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다. 높은 곳에서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여우의 무릎이 심하게 까졌다. 심지어 등까지 아팠다. 그래도 여우는 양 엉덩이살을 먹을 생각에 신이 났다. 여우는 휘파람을 불며 양 엉덩이살이 있는 쪽으로 갔다. 그런데 양 엉덩이살을 한입에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렸던 여우가 놀라서 멈추는게 아닌가. 양 엉덩이살처럼 생긴 모양은 엉덩이살이 아니고 흰 돌이었다. 여우는 그제야 낭패에 빠졌다는 걸 알고 구덩이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구덩이는 매우 깊었다. 여우는 자기 꼬리를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렸다.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구덩이 저쪽에서 뱀과 거북이가 다가왔다. 여우는 오히려 기뻤다. 혼자가 아니라니 천만다행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뱀과 거북이는 많이 지쳐 보이는 게 아닌가. 늙은 여우가 물었다.

“당신들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요?”

거북이가 말했다.

“여우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욕심부리다 구덩이에 빠졌지요. 여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바로 그때 구덩이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여우가 말했다.

“일단 숨어 보자고. 누가 왔는지 들어보는 게 좋겠어.”

여우와 거북이와 뱀은 구석에 웅크렸다. 잠시 후,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며 뭔가가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다. 자칼이 신음하며 겨우 몸을 일으키자 여우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자칼님, 환영합니다.”

자칼이 여우를 보고 고함쳤다.

“헛소리 말고 좀 비켜 주지. 양 엉덩이살은 내 거야.”

여우 할아버지가 비웃었다.

“멍청한 놈. 저건 양 엉덩이살이 아니고 흰 돌이야.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굽어 죽게 생겼어.”

자칼이 입을 오므리고 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구덩이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여우가 자칼에게 말했다.

“운다고 뭐가 해결되나? 구덩이 밖이 시끄럽군. 손님이 또 올 모양이야. 어떤 손님이 오는지 숨어서 기다려볼까.”

자칼과 뱀과 거북이와 여우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다. 잠시 후, 쿵 소리가 나며 늑대가 구덩이로 떨어졌다. 팔이 부러진 늑대가 겨우 일어나서 양 엉덩이살 쪽으로 갔지만, 늑대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은 양 엉덩이살이 아니고 흰 돌이었다. 늑대가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기 있는 양 엉덩이살을 너희가 다 먹어 치운 거야?”

자칼은 늑대가 무서워서 늙은 여우를 와락 끼안았다. 여우는 끌어안고 있던 자기 꼬리를 떨어뜨리고 귀를 앞으로 내밀었다.

“늑대님. 화를 푸세요. 당신이 본 물건은 양 엉덩이살이 아니고 흰 돌입니다. 우리 모두 굽어 죽을 거예요. 흰 돌이 우리 모두를 속였어요. 모두 그놈에 욕심 때문이에요.”

늑대가 귀를 움찔거리며 여우를 쳐다보는데 구덩이 밖에서 또 소리가 들렸다. 누가 숨자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모두 순식간에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돼지가 쿵 하는 소리를 내며 구덩이에 빠졌다. 다리를 빼끗한 돼지는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구덩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이까지 드러내며 웃었다. 돼지가 울면서 물었다.

“형님들,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늙은 여우가 답했다.

“돼지야. 울어도 소용없단다. 우리 모두 흰 돌에 속았어.”

그때 또 구덩이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동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구덩이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며 곰이 구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곰은 털이 많아서 팔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엉덩이가 너무 아팠다. 구덩이 속에서 동물들을 보자마자 곰이 소리를 질렀다.

“당장 말해 봐! 여기 있는 양 엉덩이살을 대체 누가 먹었어?”

구덩이 속 동물들은 아무 말도 못 했다. 늙은 여우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곰 양반, 우리 중 누구도 양 엉덩이살을 먹지 않았다네. 당신이 본 물건은 양 엉덩이살이 아니고 흰 돌이 라네. 흰 돌이 우리를 속인 거야. 그러니 부디 우리에게 화내지 마시게. 우리는 모두 여기서 꼼짝없이 굽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우의 말을 듣고 곰이 물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렇게 넓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우가 곰을 달래며 말했다.

“그래 그래요. 그럼시다. 우리 찬찬히 생각을 좀 해 복시다.”

동물들은 머리를 맞대고 구덩이 밖으로 나갈 방법을 궁리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동물들은 점점 힘들고 배도 고파졌다. 몸도 마음도 지친 동물들은 구덩이 바닥에 웅크리고 쪽잠을 잤다. 여우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어떻게 하면 가장 힘이 센 곰이 다른 동물들을 모두 죽이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리고 곰만 남았을 때는 곰을 어떻게 없앨까, 묘안을 생각해내느라 새벽녘에는 눈까지 빨개졌다.

구덩이에 빠진 첫날에 동물들은 굽었다. 다음 날에도 동물들은 졸졸 굽었다. 셋째 날이 되자 여우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여우가 동물들을 모아 놓고 말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는 졸졸 굽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 함께 굽어 죽느니 한 녀석만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소. 내가 노래를 부를 테니 이름이 맨 꼬찌에 나오는 자를 먹기로 하면 어떻소?”

동물들은 잠시 생각해 보고는 늙은 여우의 말처럼 하는 게 좋겠다고 합의했다. 여우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여우, 여우는 교활하.

여우는 양 엉덩이살로 양 엉덩이살 아닌 모든 걸 상 키지.

곰, 곰은 바보.

돼지, 돼지는 뚱뚱보.

늑대, 늑대는 울보.

자칼, 자칼은 군인.

뱀, 뱀은 채찌!

거북, 거북이는 그릇.

동물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여우가 곰을 보며 말했다.

“곰 양반, 우리에겐 마실 물도 없다오. 보리 한 틀도 없다오. 그러니 그릇 따위는 필요가 없다오. 노래를 불렀으니 잡아먹으면 된다오.”

동물들은 거북이에게 달려들어 등껍질만 남기고 뚝 땅 먹어 치웠다. 하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던 곰이 여우에게 말했다.

“여우 할아버지. 다시 노래를 부르세요.”

여우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여우, 여우는 교활하.

여우는 양 엉덩이살로 양 엉덩이살 아닌 모든 걸 상 키지.

곰, 곰은 바보.

돼지, 돼지는 뚱뚱보.

늑대, 늑대는 울보.

자칼, 자칼은 군인.

뱀, 뱀은 채찌!

다시 동물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여우가 말했다.

“곰 양반, 여기엔 말도 없고 당나귀도 없는데, 채찍 따위가 필요할까? 내가 노래를 불렀으니 잡아먹으면 된다오.”

동물들이 뱀에게 달려들어 뱀의 살점을 모조리 뜯어 먹었다. 곰이 여우를 재촉했다.

“여우 할아버지, 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여우가 다시 노래를 불렀다.

여우, 여우는 교활하니.

여우는 양 엉덩이살로 양 엉덩이살 아닌 모든 결상

크지.

곰, 곰은 바보.

돼지, 돼지는 뚱뚱보.

늑대, 늑대는 울보.

자칼, 자칼은 군인.

여우가 노래를 멈추자 동물들은 여우를 쳐다봤다.
여우가 말했다.

“여러분, 그릇을 먹었고 채찍도 먹었는데 군인이 군이 필요할까? 노래가 끝났으니 잡아먹으면 된다오.”

동물들이 여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칼에게 달려들었다. 자칼을 잡아먹은 동물들은 이제야 배가 불렀다. 각자 구석으로 흘어져서 잡을 청했다. 아침이 되어 구덩이 속으로 빛이 들어오자 동물들은 어느새 깨어있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서로 눈치만 보는 동물들을 지켜보던 곰이 더는 봄 참겠는지 여우를 재촉했다.

“여우 할아버지, 배고파 죽겠어요. 노래를 불러봐요.”

여우가 노래를 불렀다.

여우, 여우는 교활하니.

여우는 양 엉덩이살로 양 엉덩이살 아닌 모든 결상

크지.

곰, 곰은 바보.

돼지, 돼지는 뚱뚱보.

늑대, 늑대는 울보.

여우가 노래를 끝내자 곰과 돼지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곰 양반, 울보가 세상에 필요할까? 내 노래가 끝났으니 잡아먹어도 된다오.”

여우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곰이 늑대에게 달려들었다. 곰은 늑대의 목을 물어 단숨에 숨통을 끊었다. 여우와 돼지도 달려들어서 숨이 끊어진 늑대의 살점을 뜯어먹었다. 동물들은 늑대 고기를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먹어 치웠다. 하루가 또 지나 아침이 되자 곰이 여우를 재촉했다.

“여우 할아버지, 배가 고파 죽겠어요. 노래를 빨리 불러주세요.”

여우가 노래를 불렀다.

여우, 여우는 교활하니.

여우는 양 엉덩이살로 양 엉덩이살 아닌 모든 결상

크지.

곰, 곰은 바보.

돼지, 돼지는 뚱뚱보.

돼지는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노래를 끝낸 여우가 곰을 보고 말했다.

“곰 양반, 뚱뚱보가 이 세상에 쓸모가 있을까? 내

노래가 끝났으니 잡아먹어도 된다오.”

곰은 여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돼지에게 달려들었다. 여우와 곰은 돼지의 살점을 뜯어 먹었다. 여우는 돼지고기 한 덩이를 겨드랑이에 몰래 숨겼다. 다시 하루가 지나 아침이 되었다. 구덩이 바닥에는 이제 여우와 곰만 남았다. 여우는 겨드랑이에 코를 대고 돼지고기 살점을 뜯어 먹고 있었다. 곰이 여우가 하는 양을 보고 물었다.

“여우 할아버지, 고기를 어디서 냈어요? 나도 주세요.”

“배가 고파서 내 겨드랑이 살을 뜯어 먹고 있다오. 곰 양반도 당신 겨드랑이 살을 조금씩 잘라서 먹어 봐요. 맛이 괜찮다오.”

여우의 말을 듣고 곰은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니, 옳다구나 싶었다. 곰은 커다란 이빨로 자기 겨드랑이를 세게 물었다. 곰의 겨드랑이가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흘렀다. 곰은 너무 아파서 피가 흐르는 겨드랑이를 부여잡고 으르렁거리며 신음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곰은 점점 지쳐갔다. 구덩이 바닥은 곰의 피로 붉어졌다. 이틀이 지나자 곰은 더 버티지 못하고 구덩이 바닥에 쓰러졌다.

“곰은 정말 바보라니까.”

곰이 죽자, 그때까지 구석에서 웅크려서 몸을 숨기고 있던 여우가 숨이 끊어진 곰에게 다가왔다. 여우는 즐거워서 콧노래까지 부르며 곰 고기를 뜯어 먹었다. 여우는 곰 고기를 먹으면서 잘 지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지나 곰 고기가 다 떨어지자 여우는 다시 배가 고팠다. 여우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잡고 흐느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지. 그놈의 욕심만 아니었으면 여기에 떨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때마침 구덩이 근처를 지나던 사냥꾼이 여우의 울음

을 듣고 구덩이 바닥을 내려다봤다. 구덩이에 빠진 여우를 본 사냥꾼은 구덩이 바닥으로 올가미를 던졌다. 여우를 구덩이에서 끌어낸 사냥꾼이 말했다.

“못된 여우야. 너는 우리 마을의 닭을 잡아먹고 우리 동네 들판에 사는 새도 잡아먹었어. 드디어 너를 잡았구나.”

사냥꾼은 여우의 목을 조르고 흙, 옆으로 던졌다. 사냥꾼이 구덩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콧노래를 부르며 칼을 갈기 시작했다. 운 좋게 잡은 여우의 털가죽을 벗겨서 얼마에 팔까 생각하니 신이 났다. 여우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맛있을까, 푹 고아 먹는 게 좋을까, 고민하니 입에 침도 고였다. 씩씩, 칼 가는 소리가 났다. 그때 여우가 갑자기 별떡 일어났다. 사냥꾼이 이상한 눈치를 채고 돌아다봤을 때는 이미 여우가 멀리 도망가고 있었다. 사냥꾼은 망연자실해서 털썩 주저앉았다. 언덕 꼭대기에서 여우가 소리를 질렀다.

“사냥꾼 놈아, 한 가지 일을 다 마치기 전에 다른 일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말도 모르냐? 목을 제대로 졸랐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죽 벗길 궁리를 해야지.”

사냥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우가 사라진 언덕을 오래 보다가 후회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다.

『태양의 사랑』은 Azerbaijani Diaspora(FASD)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으며 일곱 가지 이야기 중 다섯 번째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마심리 레일라
Masimli Leyla

바쿠 국립 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국어학 석사)과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박사).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에듀니티랩 연구소 근무. 한국의 여러 어린이집과 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화 강의. 저서 『태양의 사랑』.

문학매거진 SIMA

2025년 작품 응모안내

〈파란하늘〉에서는 새로운 작법을 시도함으로써 다각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대문학을 수용하고자 〈문학매거진 SIMA〉를 계간지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학매거진 SIMA〉는 시, 시조, 동시, 손바닥소설, 디카시, 디카에세이, 시화,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담아 시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문학매거진 SIMA〉는
문학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시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읽을거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대상 : 문학를 사랑하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등단, 미등단에 상관없이 응모 가능합니다.
- 응모 기간 :
 - 여름호 2025년 4월 25일(금) / - 선정 공고 5월 10일(예정)
 - 가을호 2025년 7월 25일(금) / - 선정 공고 8월 9일(예정)
 - 겨울호 2025년 10월 24일(금) / - 선정 공고 11월 8일(예정)결과는 홈페이지(dohun.kr)를 통해 공지합니다.
- 작품이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책을 보내드립니다.
원고 접수할 때 꼭 주소를 써 주세요.
- 원고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원고모집 공고를 보고 꼭 공고 내용대로 접수해 주세요)
원하는 분야에 각 1편씩만 접수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은 디카시와 동시만 접수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 : hello@dohun.kr
- 응모할 수 있는 부문 : 신작시, 청소년시, 동시, 디카시, 디카에세이,
시화, 캘리그라피, 손바닥소설, 시마SF 스토리

미운 오리 새끼

서영우



난 늘 외톨이였지만

같은 물에 놀다고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냐

갈매기 조나단처럼
비상의 꿈을 꾸고 있는 거야

2021년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 디카시〉 최우수상, 2024년 〈고성국제한글디카시공모전〉 우수

봄날

염진희



꽃비 내릴 때도 있었지

검게 속 태운 빈 몸도
하얗게 되살아 가는
꽃 피는 날

금밥

이 경 순



속삭이는 바람에 안겨

구름이 물고 간 목숨 같은 손들이

승승 넘기는 꽃잠에

향기로운 금밥 한술 뜨시지요?

2007년 〈아람문학〉 등단, 선진문학작가협회 본부장, 〈손곡 이달문학상〉 대상 수상

오래된 꿈

정사월



괴로운 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부러움은 결핍만 부를 뿐이지만

그래도 날고 싶은

바쁘셨군요

이 민 배

만들다 만 솜사탕
 나뭇가지마다 달아 놓고

 옷 만들 시간 부족해
 솜을 떼어 붙여놓은
 아름다운 설경.

어찌나, 들켜버린 당신의 정체
 차 바퀴 두 줄
 선명하게 나 있으니

준비하느라
 땀 흘리셨군요.

아름다운 모습 유지하며
 누군가 올 것 같은 선한 분의 모습

하얗게 용서받은 온 천하 만물이
 조용히 감사 기도하는 이 아침에

바라보는 눈과 마음에
 따스한 솜사탕이 부풀고 있습니다.

바쁘게 다녀가느라
 초록빛 희망을 두고 가셨군요.

카덴차*

이 우 디

깜짝 놀랐어! 견딜 수 없이 공기가 끈적거리는 거야
 누가 오면 그래
 마치 꿀병을 깨트린 것처럼 이유 무시한 부작용

작은 업적이야 어떤 기억은
 들켜버린 시간 태운 냄새가 꽃향기처럼 달콤해

경계 모를 갈중이 시원한 카파리 원하는 건
 서쪽이 동쪽을 편애하는 방식인 거지

스며든다는 건 근사한 일

내가 나를 결사반대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낯선 눈이 낯선 입술 깨물어도
 여전히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능소화 담 넘어가는 칠팔월은 이해가 소박맞을 일 아
 니거든

한 사람 초승 같고 다른 사람은 그믐
 간절히 원하게 된 거니까
 고농축 리워드 지급받은 게 된 거니까

누구도 감당 못 한 누구라서 다만 기다리는 누구

대체할 수 없는 분홍이 있긴 해
 만일 누가 온다면 그 누구 눈빛 오래 머문다면

그런 게 되는 거지

* 악곡이 끝나기 직전 혼자서 부르거나 연주하는 기교적이며 화려한 부분

2014년 〈영주일보〉 신춘문예(시조), 2014년 〈시조시학〉, 2019년 〈문학청춘〉시, 2019년 〈한국동시조〉 등단. 시집 『수식은 잊어요』 시조집 『썩을,』 『강물에 입술 한 잔』 『틀립의 갈피마다 고백이』. 제12회 〈시조시학〉 젊은시인상(2018), 제15회 열린시학상 시 부문(2023) 수상.

우리 언니

장 순 혁

우리 언니는요, 입이 험했어요.

욕을 달고 살았어요.

늘 나를 보면 ‘병X’ 한 마디를 내뱉고 갔어요.

아빠가 언니를 때리면 언니는 가만히 맞았어요. 쓰러질 때까지.

언니가 쓰러질 때까지 때리고도 분을 삭이지 못한 아빠가 내게 다가오면

언니는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어요.

그러면 아빠는 다시 언니를 때렸죠.

한참을 언니를 때리던 아빠가 집에서 나가면

언니는 힘없이 일어나 앉아 벽에 등을 기댔죠

그러고는 주머니를 뒤져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나를 보며 한마디를 했어요. ‘병X.’

언니는 내가 배고프다고하면 라면 하나를 끓여줬어요.

방바닥에 냄비를 놓고 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언니는 안 먹느냐는 내 물음에 언니는 늘 똑같은 말을 했어요. ‘병X.’

그날, 그날은 하필 아빠가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고, 그날은 하필 언니가 없던 날이었어요.

아빠는 나를 때렸고, 나는 맞고 또 맞고, 다시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기억이 잘 없는데 부분부분 내 기억으로는

중간에 언니가 들어왔고, 언니가 손에 식칼을 들었고, 아빠가 쓰러졌어요.

언니가 나를 품에 안으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언니가 우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아빠는 나를 보면 엄마가 생각난대요.

언니도 나를 보고 엄마를 떠올린 걸까요?

아저씨들이 우리 집에 많이 왔어요.

어떤 아저씨들은 아빠를 데려갔고,

어떤 아저씨들은 언니를 데려갔어요.

나는 이제 집에 혼자 있어요.

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니가 집에 오면 이번엔 내가 라면을 끓여줄 거에요.

잘때면 언니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요.

언니 냄새가 나서 좋아요.

우리 언니는요, 입이 험했어요.

욕을 달고 살았어요.

늘 저를 보면 ‘병X’ 한 마디를 내뱉고 갔어요.

우리 언니는 나를 많이 사랑해줬어요.

24시간 해장국집

허 원

새벽이 밤을 삼킨다
 가로등이 노란 비명을 흘리고
 고장 난 가스레인지 손잡이처럼
 도시의 시곗바늘이 헛돌고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허기를 안고
 잠들지 않는 골목을 찾아갔다
 커피보다 뜨거운 국물로 하루를 녹이고
 아무 말 없는 새벽을 채우길 바라며
 뚝배기 안에는 어제와 오늘이 뒤섞여
 한참을 바글바글 끓고 있다
 넘칠 듯한 눈망울들도
 결국 식어버린다는 것
 잠시나마 피어오른 김이
 천장에 작은 구름을 만들다가 사라졌다
 어젯밤 못다 한 후회를 해장하는 것이
 오늘을 벼티는 힘이라 곱씹으며
 숟가락을 쥐었다

아침이 새벽을 삼킨다
 알람 시계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장 난 것들을 돌리려 한다
 무엇에 취해있는지 모른 채
 24시간 숙취가 사라지지 않는다

비의 신경망

변 형 열

비는 지상을 걷는다.
 천 개의 발, 만 개의 입으로.
 그 물결은 단어 없이 말한다.
 언어 이전의 언어,
 한 번도 읽히지 않은 책처럼.

비는 도시에 가라앉는다.
 아스팔트의 잔등 위로,
 사라지는 신발의 기억을
 한 방울 한 방울 적신다.
 젖은 그림자가 서로를 밀어내고
 그 틈에서 무언가 태어난다.

비는 신경처럼 흘러간다.
 건물과 건물 사이,
 우산 끝에서 손끝으로,
 귓속을 두드리는 얇은 파문으로.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잠깐,
 모두가 하나의 피부가 된다.

비는 잠들지 않는다.
 수면 위를 지우고
 바다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다.
 우리는 창문을 닫고,
 그 길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비는 늘 거기 있다.
 바깥의 소리로,
 내면의 침묵으로...

케이크

양 예 지

비가 멈춘 뒤에도
 그 흔적은 남는다.
 굳어버린 진흙처럼
 내 안에 한 겹 더 쌓이는 기억들.
 발자국은 사라지지만
 비는 잊지 않는다.

나는 비를 본다.
 흘러내리는 유리 위의 무늬를,
 어딘가로 이어지는 신경망을.
 그 끝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비 자체가 나를 읽고 있을지도.

비는 멈출 수 없는 문장이다.
 그 문장이 계속 흘러가게 두자.
 언젠가 그 끝에서
 나는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진심이란 말을 스티커로 붙이고
 흰 밭이 펼쳐진다
 둥글고 폭신하다
 구멍 안에 상체를 넣고
 흰 땅에 선을 길게길게 긋는 사람
 모종삽으로 발자국을 퍼내고 있었다
 뒤돌아 걷고 있었다
 비행기가 지나가고
 날아가는 새가 교차하길래
 그 옆에서 내 발자국을 퍼냈다

뒤로 걷다 보면 원이 되었다
 그렇게 교차하다 기우뚱
 쫓겨난다 테두리 너머로

황당함이란 슬픈 얼굴이구나
 어쩔 줄 몰라 엎어진 흙더미처럼
 노래를 부르고 뽑혀 버려지는 생일 초처럼

케이크는 언제나 예쁘게 잘리는 법이 없지
 빵칼이 비스듬히 케이크를 쑤시는 동안
 조각의 모양은 완벽하지 않다

그렇게 엉망인 걸 끝,
 이라고 불렀다.
 흙이 잔뜩 묻은 손을 한 채

접시와 삽을 들고 식탁에서 모든 장면을 돌려보았다

되감기는 말들과

겹쳤다가 멀어지는 직선들

엉뚱한 슬픔이 찾아온다

주소를 잃어버린 우체부처럼

이제 케이크를 잘라줄 수 없다

아무것도 무엇도 줄 수 없다

줄 수 없단 말도 줄 수 없다

우리가 주고받은 것은 무엇일까

내 뒷만 차려두고도 빈 의자를 보며

주저앉은 식탁 앞에서

영원히 널 불러보고…

빗물에 젖은 편지

-이모의 49재에 부쳐

황자인

충무여자중학교 1학년

이모, 기르던 토끼가 죽었어요.

마땅히 털을 씻겨줄 곳이 없어 서성거렸어요. 서늘한 몸이 바람 같아서 바다 너머 사체를 던져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모래사장에 묻어주기로 했어요. 토끼의 영혼이 밤을 헤맬 때 리코더를 불어 길을 열어 줄 거예요. 이모가 찾아올 오선지를 함께 그리는 거지요. 노을은 아름답지만 기이한 곳이죠. 보이지만 닿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모, 토끼집을 열어두세요.

토끼숲의 토끼들과 이모의 체온을 기억해요. 무수한 토끼들을 쓰다듬고 오던 날, 모든 계절이 해방을 맞았지요. 토끼는 더 이상 떠나지 않았고, 우리는 손을 잡았어요. 하루는 길었죠. 올리브나무의 장작을 태우면 모닥불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이모에게서 빠져나오는 그림자가 아까워서 음영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모의 그림자에 더 가까워진단 걸 느꼈던 거죠. 우리, 반나절은 토끼숲에서 뛰어다니던 토끼의 털을 빗기며 보냈어요. 기억하나요? 떨어진 털로 공을 만들었죠. 그리고 밤하늘의 토끼와 나의 거리를 쟁 지도를 그렸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뛰어가는 토끼, 그리고 이모

부디 이모, 토끼숲에서 맷은 언약은 잊기로 해요.

그리고 언젠가 토끼가 별자리에 가닿는 걸 기다리기

로 해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이모는 여전히 아름답고 나는 밤마다 이모의 언약을 기도하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언약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기도는 완성되는 거예요. 혹시 내게 답장 한 통 보내지 않은 이유가 완공되지 않은 토끼집이라거나 아끼지 못한 그림자, 이런 부류의 것이라면 이모, 나는 정말 괜찮아요.

가방의 무게

양현서

세화여자중학교 2학년

다녀오겠습니다
 시침과 초침이 약속된 곳을 길게 뻗어 가리킬 때
 매일 그렇게 외친다
 나는 가야 하는 길을 등지고 반대로 간다

매일 보는 익숙한 얼굴들의 친구들이
 매일 걷는 쭉 뻗은 길과 도로가
 나를 등지고 있다

나는 친구들의 그림자가 된 듯
 소리가 없다

가방을 아무렇게나 벗어 두고
 벤치에 앉으면 언뜻 매끈해 보이지만
 흠진 구석이 꽤나 많았다

발치에 지나가는 개미가 부스러기를 이고 간다
 나이 훌린 별 볼 일 없는 것이겠지
 개미는 자신보다 40배 더 무거운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른다고 한다
 개미들의 행진을 가만 보며 생각한다
 몸을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내 몸보다 작은 가방을 맨 채로
 무엇을 극복하고 있는 것일까

벗어 둔 가방에선 숙제와 책이 짤끔 빠져나와 있다
 내가 훌린 책들을 개미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고 가주면 좋겠다
 개미에게 있어 내가 가진 것이
 과자 부스러기만큼 가치 있을까

철도역에 서서

정명준

통영고등학교 1학년

북천길 철도역이 녹슬어 있다
 길을 걷던 할아버지가 멈춰 섰다
 풀이 웃자란 곳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녹슨 철도가
 병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같다

한때 반짝이는 날들을 실어 나르며
 길게 기적 울리며 떠나는 열차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철도역

지금은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가 몇몇 피어 있을 뿐
 열차도 사람도 보이질 않는다

할아버지 일생이 이랬겠다
 삶의 궁핍함과 어깨에 짊어진 가장의 무게
 모든 걸 견디며

할아버지는 힘든 시간 묵묵히 걸어왔다
 이제 할아버지는 동공이 비어있고
 팔다리는 양상하게 뼈만 남았다

북천 철도역에 서서
 내가 열차가 되어
 천천히 과거역으로 간다

산과 바다와 거친 들판을 지나
 어린이를 지나 어른을 지나 다시 어린이가 되는

그러는 사이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어두운 빛의 춤

조 모 현

마산제일고등학교 1학년

계절을 바꿔 달리니 아이가 그곳에 멈춰 서 있다
 우울한 먹구름이 빠르게 서쪽으로 흘러가는
 저 먼 곳에
 아이 적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다

밤이 되면,
 빛은 눈을 감고,
 그림자는 웃는다.
 차가운 바람이
 뜨거운 날을 기억하며
 조용히 숨을 쉰다.

꽃은 자라지 않지만,
 뿌리는 땅 속에서 춤을 춘다.
 하늘은 울지 않지만,
 구름은 슬픔을 나누고,
 비는 말없이 흐른다.

모든 것이 멈추고,
 그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인다.
 우리는 찾지 않지만,
 길은 항상 나타난다.
 시간은 가지 않지만,
 끝없이 달린다.

눈 오는 날

송승록

통영 제석초등학교 2학년

눈을 뜨니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있었다

나무도 길도

하얀 세상으로 변해 있었다

거리엔 사람보다

눈사람이 더 많았다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

눈길을 걷는 눈사람

눈사람은 부지런하다

녹으면 태어나고

자꾸 태어나고

나는 눈사람 닮은 동생을 갖고 싶었다



겨울바람

김지민

부산 송수초등학교 3학년

쌩쌩

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훨훨

새가 날며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겨울 공기에 얼어붙은 바람이

우리를 스쳐간다.

바람을 잡을 수만 있다면

포근하게 안아주고 싶어.

스마트 폰

최민서

포항 학천초등학교 3학년

그만 좀 봐

배터리가 5%잖아

그래놓고 꺼지면

아!!

중요한 장면인데 하고

던져버리잖아

나 그때 너무

아프단 말이야

발표는 떨리지만

서 준 수

고양 대화초등학교 5학년

난 지금 발표를 할 거야.
하지만 너무 떨려.

왜 내가 선생님께
발표한다고 말했지?
어쨌든 발표한다고 말했으니까
발표를 해야지.

난 힘을 줘
조금씩 더듬더듬
발표를 시작했어.

잠시 뒤
내 발표가 끝났어.
난 할 수 있었던 거야.

걸림돌과 디딤돌

김 민 재

남양주 가곡초등학교 6학년

살면서 걸림돌이 많다. 그만큼 디딤돌도 많다.
걸림돌이 없는 부자 아이들은 걸림돌을 감당하지 못
한다.
하지만 힘들게 자라서 걸림돌이 많았던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에 있어도 잘 이겨
낸다.
나도 걸림돌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성공하는 것도 쉬워진다.
왜냐하면 하나의 일을 하고 나면 끈기가 생겨 계속하
기 때문이다.



詩 담 시 담

이창건

| 나의 동시 이야기

어리석은 생각

꽃자리에 앉은 눈송이를
꽃이라 하며
손뼉을 쳤지
그리고 눈 녹는 것을
안타까워했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나는 몰랐어
눈이 녹아내리는 것이
하늘과 땅이 손잡고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

꽃은 꽂이어서 핀다

꽃이 피는 건
햇살로 피는 게 아니다
봄비로 피는 게 아니다

허영심으로 피는 건 더 더욱 아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피는 것도 아니다
꽃은 꽂이어서 피는 거다
스스로 피어 아름다우려고
스스로 피어 향기로우려고
꽃은 꽂이어서 피는 거다
나는 꽃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피는 거다

꼬마 철학자

나는
왜
태어났을까?
지금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냉이

아직 채 풀리지 않은
밭에 나가
냉이 한 소쿠리 캐온 외할머니
겨우 내내 끊이지 않고 흐르는
실도랑에 앉아
냉이 뿌리를 하얗게
쌀처럼 씻는다
나의 밥이 되고
나의 신발이 되어준 냉이
나는 외할머니의 냉이로
배고픔을 견디던 날이
참 많았다
시장 바닥 한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은 나의 외할머니

동심은 어린이의 마음이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어린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른의 마음속에도 어린이의 마음이 존재한다. 동시는 어른 속의 동심으로 쓰는 시다.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린이의 생각과 감성으로 느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나는 동시를 쓰면서부터 우리 동시가 좁은 의미의 동심에만 갇혀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인간이 추구하는 진선미의 가치와 의지까지도 동심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변화하는 시대에 호응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어린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동시 쓰기를 고집한다. 나는 이런 확장된 동시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신념으로 나는 내 동시에서 존재의 의미, 사랑의 가치, 쓸쓸하고 아픈 영혼에 대한 구원, 그리고 자연과 우주의 신비를 탐구해 왔다.

내 동시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꽃은 왜 피는 걸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 ‘슬픔은 어디서 오는 걸까?’ 때때로 떠오르는 질문들은 곧 반성과 성찰로 이어진다. ‘나는 왜 어리석을까?’, ‘나는 친구를 왜 아프게 했을까?’, ‘나는 왜 잘못을 반복할까?’, ‘나는 왜 고마움을 모를까?’

이러한 질문과 성찰은 내 동시가 자연스럽게 철학을 닮게 만든다. 물론 시가 철학이어서는 안 된다. 시는 철학을 뛰어넘는 신비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동시는 어린이의 슬픔과 기쁨을 노래하며 인간 본연의 동심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철학이 인간의 본성과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문학은 인간의 고통과 절망, 희망과 사랑을 응시하고 품는다. 이런 점에서 철학과 문학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그리고 인간의 동심을 탐구하는 데 있어 동시만큼 적절한 도구는 없다. 동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술 또한 동시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 〈시마〉의 詩담, 시담의 동시도 이러한 마음을 담을 것이다.

이창건



1951년 강원 철원에서 태어나 1981년 『한국아동문학』에 「어머니」가 추천되어 등단. 동시집 『풀씨를 위해』, 『소년과 연』, 『소망』 외 다수. 〈대한민국문학상〉 신인상, 〈소천아동문학상〉, 〈윤석중문학상〉 등 수상.

예일초등학교 교장과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장 역임.

더 큰 꿈을 품은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
파란하늘
정성껏 책에 담아 드립니다

공감 시선



공감시선 06 _전건호 / 꽃점을 치다

공감시선 07 _이교상 / 꽃의 문장으로 당신을 중얼거리다
(2021 <아르코문예창작기금> 수혜)

공감시선 08 _김정자 / 시간이 아직도 익지 않은 까닭

공감시선 09 _정대구 / 그대로 멈춰 섯

공감시선 10 _최광모 / 디지털 장의사(2022 <아르코문예창작기금> 수혜)

공감시선 11 _이도훈 / 봄날은 십 분 늦은 무늬를 갖고 있다
(2022 <아르코문예창작기금> 수혜)

공감시선 12 _김영희 / 본문과 추신(강원문화재단 후원 수혜)

공감시선 13 _김영희 / 바람이 노래하는 곳(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금 수혜)

공감시선 14 _정대구 / 1003이와 1004 사이 날개가 있다

공감시선 15 _이상구 / 윤달 화첩

공감시선 16 _황희영 / 고요를 담다

공감시선 17 _윤석산 / 용담 가는 길

서정의 서정



서정의서정 1 / 권달웅 _꿈꾸는 물

(2020 세종도서 선정, 녹색문학상, 목월문학상 수상)

서정의서정 2 / 윤석산 _절개지

서정의서정 3 / 조창환 _나비와 은하

서정의서정 4 / 한광구 _나무길

서정의서정 5 / 이사철 _고니는 삼 일만 예쁘다

서정의서정 6 / 신현정 _빨간 우체통 앞에서

서정의서정 7 / 이세룡 _세계의 폭탄이 모두 별이 된다면

서정의서정 8 / 박만진 _울음의 변천사

이 광 두 시집

비|누



이광두 시인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시계가 지체되기를 바라고,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 자연 사물에 섬세한 관심과 관조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그의 시편들은 전반적으로 개개 사물과 사건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비유적 묘사, 서정적이면서 내밀한 사유, 현실문제 채집과 서사진술 능력이 빛난다.

- 공광규 시인 「자연묘사와 농촌 현실, 그리고 가족서사」 중에서

더 큰 꿈을 품은
파란하늘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W109호 02) 595-4621
flyhun9@naver.com / 홈페이지 : <http://dohun.kr>

책은 교보문고, 예스24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자와 할머니가
함께 쓴 동시집

양 율 이 의 꿈

이 동시집은 일곱 살 손자와 시인이자 수필가인 할머니 간의 '아름다운 소통'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린 손자랑 함께하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주고받은 이야기와 느낀 감정을 그때그때 기록한 그림 동시집이다. 그런 만큼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랑의 대화가 꼬리를 물고 이어질뿐더러 읽는 이의 가슴에 행복의 무늬를 아로새겨준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책이 있지만, 이보다 아름다운 책이 있을까 싶다.

- 윤수천 (아동문학가, 시인)



이야기 · 그림 :
양 율

동시 · 글 :
황금모시인

더 큰 꿈을 품은
파란하늘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

정성껏 책에 담아 드립니다

공감시인선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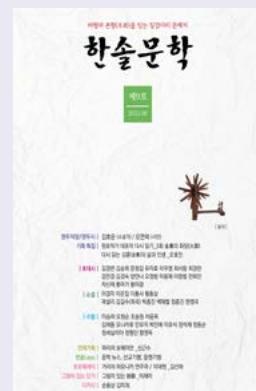
공감디카시 (1~7)



공감하는공간 (에세이, 소설, 1~24)



〈한솔문학〉 (반년간지, 1~10)



꿈꾸미 동화, 동시집 및 어린이해양안전동화 총 14권



낭랑 18세 박하은 시인의 시집



박하은

제2회 시마청소년작품상 최우수상 수상
제20회 현대시문학 청소년 문학상 금상 수상
제24회 의정부 전국문학공모전 장려상 수상
제20회 한국청소년문학상 동상 수상

내 빛들로 별자리를 엮을
당신에게

박하은의 말처럼 “이 기이한 삶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수백만 년 인간의 역사를 통해 쓸어 온 모든 경험적 유산들이 일시에 사라지리라. 가난하기에 염원하고, 아프기에 기도한다. 이별을 슬퍼하고 만남을 기뻐하는 이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김재홍 「괴롭고 아름다운 순간들, 벌써」 중에서

더 큰 꿈을 품은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W109호 02) 595-4621
파란하늘 flyhun9@naver.com / 홈페이지 : <http://dohun.kr>

책은 교보문고, 예스24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학매거진 SIMA〉 후원 안내

문학매거진 SIMA를 후원하시면 잡지 발간과 청소년 문학사업에 큰 힘이 됩니다.

〈문학매거진 SIMA〉는

엄선된 시인의 작품과 일반 회원의 공모시, 디카시, 디카에세이 등 시 관련 작품과 평론가, 화가, 음악가, 연극인, 소설가, 여행가, 시인의 다양한 에세이를 연재하여 읽는 이에게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 정기구독 : 연(年) 5만 원.

■ 후 원 : 연(年) 10만 원.

■ 시마계좌 : 농협 302-6722-4621-01 (예금주: 이양훈(본명))

후원금을 매월 나누워 자동이체로 후원하셔도 됩니다.

문의 : 02-595-4621 / 010-6722-4621 / flyhun9@naver.comr

즐거운 문학놀이에 함께 하세요~.

“잡지가 계속 만들어져야, 문학이 살고, 글 쓰는 사람들이 살고,
그래야 독자도 삽니다.”

제4회 시마청소년작품상 응모 안내

문학매거진 〈SIMA〉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제4회 시마청소년작품상을 공모합니다.

2025년 문학매거진 〈SIMA〉 여름, 가을호에 먼저 응모를 하세요.

선정된 작품들 중에서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 연말에 시상합니다.

최우수상 : 기념패, 상장, 상금(50만 원, 1명) / 우수상 : 기념패, 상장, 상금(20만 원, 2~3명)

장려상 : 상장, 상금(상품권 2만 원, 다수) 수상 인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큰 꿈을 품은 "파란하늘"을 시작합니다.

글 쓰는 사람과
글 읽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을 꿈꾸는
파란하늘입니다.

출연금 기부 및 기업, 개인 후원 상담
문학상 및 공모전 개설, 문의해 주세요.
02) 595-4621 / flyhun9@naver.com



유튜브 영상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검색어 : "파란하늘 문화재단"

삶이 글이 되는 순간

그림 : 소리여행



이윤화 장세현 이수현 김현미
이정오 윤종원 이은정 Sunny Kim
8명의 시인, 소설가, 수필가가 역은 진솔한 삶의 이야기!

더 큰 꿈을 품은
파란하늘 책은 교보문고와 예스24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학매거진 SIMA 22호, 2025 봄호

시마초대석 _이영춘,

영화처럼 강물처럼, 열차를 타자 / 1

SIMA SF _전솔이 / 4

시와 사진 _김미희 · 김선하 / 6

조성찬의 여행인문학 / 8

SIMA 봄 초대시

_고명재 / 12

_김이녁 / 15

_장주호 / 17

세계의 시 _오민석 / 20

유성호의 문학톡톡 / 24

손바닥소설 _박보라 / 28

_정이흔 / 31

칼로 새긴 시 _박해람 / 34

정택근의 야생화 / 36

윤성택의 불씨 하나 품고 / 40

dica詩악 _송재옥 / 44

靑, 시로 듣다 _신지영 / 48

사랑을 전하는 편지 _장혜진 / 50

SIMA 특집 아제르바이잔 구전동화

_태양의 사랑

_마심리 레일라 · 유수진 / 52

SIMA 디카시 / 58

SIMA 봄 신작시 / 62

SIMA 청소년시 / 67

SIMA 동시 / 70

詩담시담 _이창건 / 72

세상에 보내는 러브레터 문학매거진 SIMA

제22호(2025년 봄호) © 이도훈, 2025

1판1쇄 발행_ 2025년 3월 5일

발행인_ 이도훈 | 편집장_ 오혜정 | 편집부장_ 송연숙 | 편집_ 려원 | 편집·디자인_ 이예은

편집위원_ 이준관 박수빈 김이듬 양진기 이해미 김영빈

펴낸곳_ 파란하늘

사무실_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W109호(서초동, 양지원빌딩)

전 화_ 02-595-4621 / 010-6722-4621

이메일_ flyhun9@naver.com | 홈페이지_ www.dohun.kr



파란하늘 출판사 홈페이지
<https://dohun.kr/>

ISSN 2671-7905 | ISBN 979-11-94737-00-1 03810

정가_ 14,000원

이 책의 글에 관한 저작권은 저자와 저자에게 협의, 위임받은 출판사에 있습니다.

저자 허락과 출판사의 동의 없이 글이나 사진의 인용 및 발췌를 금합니다.



날다의 뜨락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nald2424>

※ 파란하늘의 수익금은 계간지 발간과 청소년을 위한 문학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보다 더 생생한
제주4·3역사만화

제주4·3평화문학상 당선 작품과 함께하는
Graphic Novel and Poem

4·3 표류기



글_유수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시로 당선했으며 『경북일보 문학대전』에 소설로 입상했다. 제10회 『4·3평화문학상』에 시 「폭포」로 당선했다. 대표저서에 「4·3표류기」 「선택 받는 글쓰기」 「태양의 사랑」 등이 있다.



만화_박건웅

대표작으로 「노근리이야기」, 「짐승의 시간」, 「그해 봄」 「제시아이기」가 있다. 2011년 『오늘의 우리만화상』, 2014년 『부천만화대상』을 수상했다.



박인환

평전

다시 박인환의 계절 !!!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윤석산 지음

개정판, 양장본 284페이지 18,000원

더 큰 꿈을 품은 파란하늘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W109호 / 02-595-4621, 010-6722-4621
홈페이지 : <http://www.dohun.kr> / flyhun9@naver.com / Fax : 050-4227-4621



파란하늘 전자책



꿈꾸는 물 _권달웅
시집, 서정의서정1
2020년 세종도서
녹색문학상
목월문학상



맑은 날을 마다 _이도훈
시집, 공감시인선 9
2018년 아르코창작기금



절개지 _윤석산
시집, 서정의서정2



봄날은 십 분 늦은 무늬를
갖고 있다 _이도훈
시집, 공감시선 10
2022년 아르코창작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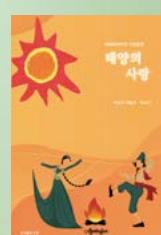
용담가는 길 _윤석산
시집, 공감시선 17
수운 최제우 대신사
출세 200년 기념 시집



선택받는 글쓰기 _유수진
글쓰기 에세이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수혜



늘 그리워하고 살아
_송영신
시와 수필 1집



태양의 사랑
_마심리 레일라 · 유수진
아제르바이잔 구전동화
아제르바이잔 Diaspora (FASD)의 후원



하얀 꽃이 하얘서
_송영신
시와 수필 2집



나는 빛을 걷는다 _라라
튀르키예(터키) 라라 시인이
한국어로 쓴 시집

파란하늘 전자책(ePub2, ePub3)은 계속 발행됩니다. 관심있게 봐 주세요.